공공데이터 오픈 API 확대 및 포털 고도화



Open API 활용가이드

**개정 이력**

|  |  |  |  |  |  |
| --- | --- | --- | --- | --- | --- |
| **버전** | **변경일** |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작성자** | **승인** |
| 1.0 | 2020-08-13 | 최초작성 | 최초작성 | 이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1. 서비스 명세 4](#_Toc530560935)

[**1.1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4](#_Toc530560936)

[가. API 서비스 개요 4](#_Toc530560937)

[나. 상세기능 목록 4](#_Toc530560938)

[다. 상세기능내역 5](#_Toc530560939)

[1) [부산도보여행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5](#_Toc530560940)

[2) [부산도보여행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28](#_Toc530560940)

[3) [부산도보여행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55](#_Toc530560940)

[4) [부산도보여행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77](#_Toc530560940)

[5) [부산도보여행 중문 번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98](#_Toc530560940)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118](#_Toc530560941)

**1. 서비스 명세**

**1.1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가. API 서비스 개요

|  |  |  |  |  |
| --- | --- | --- | --- | --- |
| **API 서비스 정보** | **API명(영문)** | WalkingService | | |
| **API명(국문)**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 |
| **API 설명** | 부산관광도보여행의 이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좌표,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 | |
| **API 서비스**  **보안적용**  **기술 수준** | **서비스 인증/권한** | [O] ServiceKey [ ] 인증서 (GPKI/NPKI)  [ ] Basic (ID/PW) [ ] 없음 | | |
|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 전자서명 [ ] 암호화 [O] 없음 | | |
| **전송 레벨 암호화** | [ ] SSL [O] 없음 | | |
| **인터페이스 표준** |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O] REST (GET)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 | |
| **교환 데이터 표준**  **(중복선택가능)** | [O] XML [O] JSON [ ] MIME [ ] MTOM | | |
| **API 서비스**  **배포정보** | **서비스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 | | |
| **서비스 명세 URL**  **(WSDL 또는 WAD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_wadl&type=xml | | |
| **서비스 버전** | 1.0 | | |
| **서비스 시작일** | 2020-08-13 | **서비스 배포일** | 2020-08-13 |
| **서비스 이력** | 2020-08-13: 서비스 시작 | | |
| **메시지 교환유형** | [O]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 | |
| **서비스 제공자** | 이재경 / 부산시 관광진흥과 / 051-888-5204 / bsjklee@korea.kr | | |
| **데이터 갱신주기** | 년 1회 | | |

나. 상세기능 목록

|  |  |  |  |
| --- | --- | --- | --- |
| **번호** | **API명(국문)** | **상세기능명(영문)** | **상세기능명(국문)** |
| 1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getWalkingKr | 부산도보여행 국문 정보 |
| 2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getWalkingEn | 부산도보여행 영문 정보 |
| 3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getWalkingJa | 부산도보여행 일문 정보 |
| 4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getWalkingZhs | 부산도보여행 중문 간체 정보 |
| 5 | 부산도보여행정보 서비스 | getWalkingZht | 부산도보여행 중문 번체 정보 |

다. 상세기능내역

1) [부산도보여행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1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도보여행 국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도보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국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Kr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26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58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콘텐츠명 |
| CATE2\_NM | 구분 | 100 | 0 | 도심길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1163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3874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이야기로 피어난 어제의 기억 초량이바구길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이바구 꽃이 피었습니다 | 부제목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도보 2분, 초량역 1번 출구 도보 8분  버스 26, 27, 40, 41, 59, 81, 87, 103, 1003, 1004 부산역 하차 도보 2분  주차 인근 공영주차장 | 교통정보 |
| MIDDLE\_SIZE\_RM1 | 기타정보 | 500 | 0 |  | 기타정보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부산항을 기준으로 근처에 보이는 산 중턱마다 죄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들.  정든 고향 남겨두고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일군 마을. 일감만 있다면 부두로, 역으로, 국제시장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르내렸을 168계단.  경상도 사투리도 모르던 사람들이 피워낸 이야기 길, 초량이바구길을 만나러 가자.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초량이바구길&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옛백제병원 - 남선창고터 - 초량교회 - 168계단 -김민부 전망대 - 이바구공작소 - 장기려더나눔센터 - 유치환우체통 전망대&lt;/p&gt;  부산역을 빠져나오면 부산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산역사 길 건너 좁은 골목길에서 만나는 옛백제병원과 남선창고터가 초량이바구길의 출발점이다. 웅장한 백제병원과 벽만 남은 남선창고터의 적벽돌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1920년대에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했던 두 곳의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하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최초로 세워진 초량교회를 찾아간다.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집결지였다고 한다. 초량초등학교 담장을 따라가는 좁은 골목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난다. 저마다의 사진 속에 피난민의 희로애락이 비춰진다.  도로도 없던 까꼬막 판자촌에 상수도가 있었을 리 없다. 168계단을 뛰어내려와 양동이에 물을 길어 끝이 없을 것 같은 계단을 다시 올라야 했겠지. 터만 남은 우물과 계단 옆 모노레일은 속절없이 흘러버린 세월의 무정함을 느끼게 한다.  부산 출신의 천재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 전망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이바구공작소로 향한다. 이바구공작소는 초량 산복도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하늘과 맞닿을 듯 자리한 산복도로 마을에는 집집마다 사연이 많다. 거친 삶의 흔적을 담담히 전해주는 곳이다.  평생 자신의 집 한 칸 마련하지 않고 가난한 피난민을 무료로 진료한 외과의사 장기려 박사. 의술이 아닌 인술을 베푼 그의 행적을 기리는 장기려더나눔센터에서 자발적 가난의 숭고함을 배운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산복도로를 만나는 지점 끝에 자리한 유치환우체통전망대에서 부산항을 조망하며 초량이바구길의 여정을 마감한다.  세월이 느껴지는 골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꽃피운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제 ‘이바구’가 이야기라는 걸, ‘까꼬막’이 오르기 힘든 고갯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초량이바구길은 피난민들이 그러했듯,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네 삶의 여정이다.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Kr?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초량이바구길</MAIN\_TITLE>  <CATE2\_NM>도심길</CATE2\_NM>  <LNG>129.03874</LNG>  <MIDDLE\_SIZE\_RM1/>  <UC\_SEQ>58</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도보 2분, 초량역 1번 출구 도보 8분  버스 26, 27, 40, 41, 59, 81, 87, 103, 1003, 1004 부산역 하차 도보 2분  주차 인근 공영주차장</TRFC\_INFO>  <ITEMCNTNTS>부산항을 기준으로 근처에 보이는 산 중턱마다 죄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들.  정든 고향 남겨두고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일군 마을. 일감만 있다면 부두로, 역으로, 국제시장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르내렸을 168계단.  경상도 사투리도 모르던 사람들이 피워낸 이야기 길, 초량이바구길을 만나러 가자.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초량이바구길&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옛백제병원 - 남선창고터 - 초량교회 - 168계단 -김민부 전망대 - 이바구공작소 - 장기려더나눔센터 - 유치환우체통 전망대&lt;/p&gt;  부산역을 빠져나오면 부산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산역사 길 건너 좁은 골목길에서 만나는 옛백제병원과 남선창고터가 초량이바구길의 출발점이다. 웅장한 백제병원과 벽만 남은 남선창고터의 적벽돌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1920년대에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했던 두 곳의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하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최초로 세워진 초량교회를 찾아간다.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집결지였다고 한다. 초량초등학교 담장을 따라가는 좁은 골목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난다. 저마다의 사진 속에 피난민의 희로애락이 비춰진다.  도로도 없던 까꼬막 판자촌에 상수도가 있었을 리 없다. 168계단을 뛰어내려와 양동이에 물을 길어 끝이 없을 것 같은 계단을 다시 올라야 했겠지. 터만 남은 우물과 계단 옆 모노레일은 속절없이 흘러버린 세월의 무정함을 느끼게 한다.  부산 출신의 천재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 전망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이바구공작소로 향한다. 이바구공작소는 초량 산복도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하늘과 맞닿을 듯 자리한 산복도로 마을에는 집집마다 사연이 많다. 거친 삶의 흔적을 담담히 전해주는 곳이다.  평생 자신의 집 한 칸 마련하지 않고 가난한 피난민을 무료로 진료한 외과의사 장기려 박사. 의술이 아닌 인술을 베푼 그의 행적을 기리는 장기려더나눔센터에서 자발적 가난의 숭고함을 배운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산복도로를 만나는 지점 끝에 자리한 유치환우체통전망대에서 부산항을 조망하며 초량이바구길의 여정을 마감한다.  세월이 느껴지는 골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꽃피운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제 ‘이바구’가 이야기라는 걸, ‘까꼬막’이 오르기 힘든 고갯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초량이바구길은 피난민들이 그러했듯,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네 삶의 여정이다.  </ITEMCNTNTS>  <PLACE>초량이바구길</PLACE>  <SUBTITLE>이바구 꽃이 피었습니다</SUBTITLE>  <TITLE>이야기로 피어난 어제의 기억 초량이바구길</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35</LAT>  </item>  <item>  <MAIN\_TITLE>절영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04251</LNG>  <MIDDLE\_SIZE\_RM1>휠체어 접근 가능 구간 있음(절영해안산책로 입구 ~ 흰여울해안터널 / 절영해랑길)</MIDDLE\_SIZE\_RM1>  <UC\_SEQ>25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버스 508, 6, 7, 70, 71, 82, 85, 9 영도구1, 영도구5 부산보건고등학교 하차</TRFC\_INFO>  <ITEMCNTNTS>부산하면 떠오르는 바다! 해수욕장은 많이 가봤다고? 색다른 부산바다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절영해안산책로로 가보자!  부산 영도 영선동, 태종대 입구에 위치한 절영해안산책로는 남항동의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 중리항, 감지해변길을 지나 태종대로 이어지는 약 3km 길이의 해안길이다.  과거 지형이 가파르고 험난해 군사보호 지역이기도 했던 이곳은 2001년부터 산책로로 개설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산책로 담벼락을 따라 조성된 타일 벽화와 파도문양 바닥이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어우러져 시원함을 더한다.  절영해안산책로를 걷다 보면 가끔씩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항어촌계 소속 해녀들이다. 흰여울 해안터널을 지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소박한 해녀촌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산을 구경할 수 있다. 산책로를 걷다가 살짝 출출함이 느껴질 때 해녀촌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로 바다의 참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4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5대 해안누리길에 선정된 산책로에 걸맞게 곳곳에 볼거리가 많다. 알록달록 무지개 색 피아노계단을 오르면 흰여울 전망대에 이른다. 전망대에 올라보면 남항 묘박지의 몽환적인 바다풍경이 황홀하게 다가온다. 무지개 계단을 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흰여울 해안터널로 가자. 길이 70m의 터널은 색색의 조명과 화려한 포토존이 가득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흰여울 해안터널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해안길을 마주한다. 영도의 서쪽 해안은 오래전 그 경치 그대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시원하게 부딪치는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바위 사이로 이어진 출렁다리는 긴 산책로에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킬링 포인트이다.  숲길을 지나 올라가면 절영해랑길과 이어진다. 절영해랑길은 탁 트인 바다 전경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가 많은 곳이다. 그 중 하늘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하고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 가까이 있는 75광장은 1975년에 조성된 곳으로 관광객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날이 좋은 때는 바다 건너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문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한쪽에는 수평선이, 한쪽에는 흰여울 마을 일대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힘들었던 일도 슬펐던 일도 시원하게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굽이치는 파도를 따라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은 놓치기 아까운 영도의 보물이다.  </ITEMCNTNTS>  <PLACE>절영해안산책로</PLACE>  <SUBTITLE>바다를 벗 삼아 걷는 길</SUBTITLE>  <TITLE>걷기만 해도 힐링, 절영해안산책로</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humbL</MAIN\_IMG\_THUMB>  <LAT>35.080116</LAT>  </item>  <item>  <MAIN\_TITLE>달맞이길/문탠로드</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1807</LNG>  <MIDDLE\_SIZE\_RM1>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휠체어 접근 가능</MIDDLE\_SIZE\_RM1>  <UC\_SEQ>28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 → 해운대구2, 해운대구10 마을버스 환승  버스 100, 139, 141, 200, 39, 1003, 141(심야) 미포 문탠로드입구 하차  마을버스 해운대구2, 해운대구10 일신하일라빌라 하차, 해운대구7 달맞이요양병원하차  시티투어버스 해운대해수욕장(블루라인) → 달맞이길 하차  주차 인근 공영주차장</TRFC\_INFO>  <ITEMCNTNTS>해운대 삼포길의 시작점이자 갈맷길 1코스와 2코스를 잇는 길.  월출이 아름다운 부산의 인기 드라이브 코스.  낮에는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밤에는 달빛을 맞으며 걷는 길.  파리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다면 부산에는 달맞이길이 있다.  달맞이길은 달맞이 언덕을 올라야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오르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조금씩 높아지는 시야 덕에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멀리는 광안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돌담길이 이어진 길 위에 예쁜 카페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숨은 맛집이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달맞이길의 중간지점에 해월정이 기다리고 있다. 고풍스러운 정자는 걷느라 지친 다리를 달래기에 좋은 휴식처가 되어준다. 달맞이 언덕에서도 가장 월출이 잘 보이는 명당이며, 달빛이 내려앉은 해운대 앞바다의 진풍경은 대한팔경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정월 달빛을 받으며 사랑의 언약을 나눈 남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해월정에서 문탠로드로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보자. 울창한 소나무 숲길 사이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달맞이 언덕의 초입에 있는 문탠로드 입구에서 숲길 산책을 시작해도 되지만, 이미 해월정까지 와버렸다면 이 오솔길이 문탠로드로 합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문탠로드는 달빛을 받으며 걷는 숲속길이라는 뜻으로 달맞이 언덕 시작 즈음에서 잘 조성된 산책로로 이어진다.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만 있으면 문탠로드를 산책하는 데 무리가 없다. 총 2.2km 구간을 걷고 나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끔 구성되었다. 순환 산책로는 넉넉잡아 한 시간 가량 소요된다.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동해남부선 철길을 따라가면 청사포, 송정해수욕장까지 닿을 수 있다. 달빛 산책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일몰 후 밤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불을 밝힌다.  문탠로드의 또다른 매력은 숲속 산책길을 걷고 있지만 옆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걷는 중간중간 전망대로 나가 마주하는 부산 앞바다가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준다. 복잡한 머릿속을 씻어주는 파도 소리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아보자.    솔향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은은한 달빛 산책.  북적이는 해운대의 도심만 기억한다면 확실히 다른 해운대의 숨은 매력을 만나 볼 차례이다.  </ITEMCNTNTS>  <PLACE>달맞이길/문탠로드</PLACE>  <SUBTITLE>걷기 좋은 도심 속 숲길</SUBTITLE>  <TITLE>일출과 월출 모두를 품은 달맞이길 &amp; 문탠로드</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humbL</MAIN\_IMG\_THUMB>  <LAT>35.156742</LAT>  </item>  <item>  <MAIN\_TITLE>동백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15263</LNG>  <MIDDLE\_SIZE\_RM1>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휠체어 접근 가능, 누리마루 APEC하우스 내 휠체어 대여 가능, 점자블록</MIDDLE\_SIZE\_RM1>  <UC\_SEQ>28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 1번 출구 도보 20분  버스 139, 307, 1003, 동백섬입구 하차  부산시티투어버스 부산역(레드라인) → 해운대해수욕장 하차  주차 동백공원 공영주차장</TRFC\_INFO>  <ITEMCNTNTS>해운대해수욕장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걷다 보면 백사장 끝자락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는 동백섬에 다다르게 된다. 원래는 섬이었던 이곳은 오랜 세월 퇴적작용으로 육지와 연결되었지만 부산 사람들에겐 여전히 동백섬으로 불리고 있다.  동백섬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 공원으로 조성한 동백 공원은 우거진 해송이 아름다운 곳이다. 동백섬 둘레를 따라 난 해안산책로는 950m 정도로 긴 편은 아니지만, 조용히 산책하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첫 번째 전망데크를 지나 조금만 걷다보면 바위 외로운 동상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황옥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어상이다. 바다 건너 먼 곳으로 시집 간 황옥공주는 고국을 잊지 못해 보름달이 뜨는 밤바다를 보며 슬픈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이 동상은 1974년 처음 설치되었으나, 1987년 태풍으로 인해 유실되어 현재 상체 부분은 부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의 청동인어상은 1989년 새로이 제작된 것이다.  이어지는 바닷길을 따라가면 출렁다리가 눈앞에 나타난다. 일부 구간에는 아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다리가 비교적 짧고 높은 곳에 있지 않아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라도 무난하게 지날 수 있다.  해안산책로는 넓은 전망대와 함께 하얀 등대로 이어진다.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광안대교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조금 더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오륙도까지 볼 수 있어서 부산바다를 한눈에 구경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 회의를 했던 장소이다. 본회의장에 둥글게 배치된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의 의자를 비롯하여 당시 제공된 식사와 기념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해운대 절경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현대적인 외관은 세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국제 회의장으로 손색이 없다.  바다와 숲,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동백섬. 해안선을 따라 걷는 낭만은 물론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까지. 동백 해안산책로는 이미 해운대여행의 필수코스다.  </ITEMCNTNTS>  <PLACE>동백해안산책로</PLACE>  <SUBTITLE>부산을 담은 동백해안산책로</SUBTITLE>  <TITLE>바다와 산, 그리고 부산을 걷다</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humbL</MAIN\_IMG\_THUMB>  <LAT>35.151962</LAT>  </item>  <item>  <MAIN\_TITLE>피란수도길</MAIN\_TITLE>  <CATE2\_NM>도심길</CATE2\_NM>  <LNG>129.01738</LNG>  <MIDDLE\_SIZE\_RM1/>  <UC\_SEQ>30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대비가 부족했던 남한은 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긴다. 후퇴의 후퇴를 하던 남한 정부는 1950년 8월 18일, 부산을 피란수도로 삼는다. 그로부터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부산에는 관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역사와 애환이 담긴 그 흔적을 따라가 보자.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피란수도길&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비석문화마을 -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 - 최민식 갤러리 - 기찻집예술체험장 - 임시수도기념관 - 석당박물관&lt;/p&gt;  부산 서구 아미동에는 피란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있다. 전쟁을 피해 무작정 부산에 온 피란민이 정착한 산기슭. 그곳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든 공동묘지가 자리한 곳이었다. 집 지을 자재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사람들은 비바람을 피해야 했기에 묘지마다 세워진 비석을 재료삼아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현재 비석문화마을 골목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비석문화마을에서 도보로 3분 정도면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에 닿을 수 있다. 이곳에선 아미동 일대 산복도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대로 된 터도 없이 산비탈을 따라 집을 짓고 산 피란민들.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집들을 보고 있으면 고단한 피란민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하다.  전망대 바로 아랫동네, 피란민의 삶을 생생히 증거하고 있는 최민식 갤러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다. 최민식은 대한민국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며 서민들의 삶을 가감 없이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갤러리에선 물건을 파는 자갈치 아지매, 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해맑게 웃는 아이 등 전쟁 직후 부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오래된 사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 시절 고단하고 팍팍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피란민을 마주 보는 것만 같다.  최민식 갤러리 옆 기찻집예술체험장도 가봐야 할 장소다. 기찻집이란 단어는 단칸방을 기차 칸처럼 다시 쪼개 여러 사람이 살았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살아야 했기에 좁디좁은 공간을 다시 나눌 수밖에 없었던 피란민의 옹색한 삶이 그대로 전해지는 공간이다. 지금은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자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과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기찻집예술체험장에서 능선을 따라 10분 남짓 걸으면 임시수도기념관이 자리해 있다. 임시수도기념관은 부산이 피란수도였던 약 1000일 동안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던 곳이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무를 보던 곳인데 당시 피란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형 전시관이 있어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알맞다.  임시수도기념관에서 동아대학교 쪽으로 걷다보면 석당박물관이 나온다. 과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쓰이던 곳인데 지금은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붉은 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건물은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식 건축물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푸른 바다, 마천루와 함께 하는 부산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부산의 역사를 만나고 싶은 당신이라면, 피란수도길을 따라 의미 있는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  </ITEMCNTNTS>  <PLACE>피란수도길</PLACE>  <SUBTITLE/>  <TITLE>피란민들의 애환이 담긴 임시수도 부산을 만나다</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humbL</MAIN\_IMG\_THUMB>  <LAT>35.103672</LAT>  </item>  <item>  <MAIN\_TITLE>원도심투어</MAIN\_TITLE>  <CATE2\_NM>도심길</CATE2\_NM>  <LNG>129.03847</LNG>  <MIDDLE\_SIZE\_RM1/>  <UC\_SEQ>30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여행에도 다양한 테마가 있다.  맛집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다양한 경험을 위한 체험여행 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여행지가 있다. 바로 부산원도심 스토리투어인데 여기에는 먹거리, 볼거리뿐만 아니라 부산의 옛 이야기가 구석구석 숨어있다. 투어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일대를 탐방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생생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독특한 장점도 있다.  원도심에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옛 향수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만나보자.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초량이바구길&lt;/p&gt;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이바구길에서는 근대 부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개항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드러내듯, 분위기 있는 카페로 변모한 옛 백제병원과 초량교회는 근대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김민부전망대나 유치환우체통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풍경은 갑갑했던 가슴을 한 번에 탁 트이게 할 만큼 시원하다. 산복도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168계단은 옛 동네의 정감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가파른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는 주민들을 위해 개통된 모노레일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이바구길만의 특색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감천문화마을/피란수도길&lt;/p&gt;  부산 사하구와 서구는 한국전쟁이 남긴 흔적 중 피란민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꼬불꼬불한 골목을 걸으며 다양한 벽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은 원래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산 능성에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살면서 생겨났다. 아픈 흔적만 남아있던 동네가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예술이 넘쳐나는 감성골목으로 변모하였다. 무덤 위라도 땅만 있으면 집을 짓고 살아야했던 비석문화마을도, 자갈치 막노동의 삶을 사진에 담은 최민식작가의 갤러리도, 그리고 대통령의 관저였던 임시수도기념관도 이제는 모두 피란수도 부산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용두산길/국제시장길&lt;/p&gt;  중구는 한마디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개항시기 세워진 초량왜관을 비롯해 일제 영향을 받은 부산데파트, 근대 부산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부산근대역사관과 대각사까지, 중구만큼 근대 부산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도 없어 보인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시장기가 느껴지면 곧장 국제시장으로 가보자. 피란민의 생업 전선이기도 했던 시장 여기저기에는 요기하기 좋은 음식이 가득하다. 그 먹거리 하나하나에도 애달프고 서글픈 사연이 서려 있는 것만 같다.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영도다리길/흰여울마을길&lt;/p&gt;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부산의 또 하나의 상징 영도다리로 가보자.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영도다리는 전국 최초 도개교로 피란민의 상봉장소이기도 했다. 과거에는 배를 수리하던 곳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깡깡’ 소리가 난다고 해 ‘깡깡이길’이라 부르기도 했다.  영도 해안절벽을 따라 형성된 흰여울마을길은 단골 영화촬영 장소로 이미 입소문이 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마을 아래 해안산책로 걸으면 바로 앞 영도 앞바다가 품속으로 밀려들어올 것만 같다.  </ITEMCNTNTS>  <PLACE>원도심투어</PLACE>  <SUBTITLE/>  <TITLE>이야기가 있는 알짜배기 여행, 부산원도심 스토리투어</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17</LAT>  </item>  <item>  <MAIN\_TITLE>이기대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12091</LNG>  <MIDDLE\_SIZE\_RM1/>  <UC\_SEQ>32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 버스 환승 20 22 24 27 39 131  마을버스 남구2 남구8  주차 이기대 공영주차장(유료)</TRFC\_INFO>  <ITEMCNTNTS>이기대는 남구 용호동의 장산봉 자락 동쪽 바다, 아름다운 해안 암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기대(二妓臺)’는 수영의 두 기생이 이곳에 묻혀 있다해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수영성을 함락시킨 뒤 축하 잔치를 열었는데 두 기생이 술 취한 왜장과 함께 물에 떨어져 장렬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기대는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다 지난 1993년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지금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깨끗한 수질 덕분에 부산에서 손꼽히는 낚시터이기도 하다.  이기대는 해안가 일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일찍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순환도로와 오륙도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보면 부산의 랜드마크를 다른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  이기대해안산책로는 남구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동생말~어울마당~농바위~오륙도선착장으로 이어지며 총 길이는 4.7km다(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본격 트레킹은 이기대 더뷰 아래편에서 시작되고 해안절벽을 따라 드라마틱한 풍경이 이어지는데 바다 건너 광안대교, 부산요트계류장, 마린시티,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해운대해수욕장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이기대해안산책로는 부산을 대표하는 갈맷길과 해파랑길(오륙도~고성)의 한 부분이어서 걷는 내내 여러 이정표를 만나게 된다.  동생말을 지나 구름다리 위를 걷다보면 어울마당으로 걸음이 닿는다. 이곳은 대표 해맞이 명소이자 영화 &lt;해운대&gt; 촬영지로 많은 관광객이 쉬어가는 장소다.  해안가를 따라 걷다보면 해안절벽과 파식대지의 풍광이 이색적인데 이곳은 부산국가지질공원지역으로 해식동굴, 돌개구멍(마린포트홀) 등 지질유산이 즐비하다.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위들은 그 모양에 따라 하나씩 이름이 붙어 있는데 생김새와 이름을 하나하나 맞춰 가는 재미가 있다.  산길을 통해 언덕을 넘으면 어느덧 오륙도 해맞이공원이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리 바닥으로 된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기대 해안산책로에서는 어느 곳이든 잠깐 걸음을 멈추고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걱정은 사라지고 푸른 바다만이 마음에 남는다. 이것이야말로 걷기 좋은 길의 바른 예가 아닐까.  </ITEMCNTNTS>  <PLACE>이기대해안산책로</PLACE>  <SUBTITLE>아름다운 절경, 가슴 아픈 역사</SUBTITLE>  <TITLE>부산 명품 트레킹코스 이기대 해안산책로</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humbL</MAIN\_IMG\_THUMB>  <LAT>35.130497</LAT>  </item>  <item>  <MAIN\_TITLE>삼포해안길</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17104</LNG>  <MIDDLE\_SIZE\_RM1/>  <UC\_SEQ>34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우리에게 ‘빨리빨리’ 만큼 익숙한 문화가 있을까, 그럼에도 ‘느리게 걷기’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금의 여유를 즐기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걷는 것, 모두 이 길 위에 있다. 해운대와 송정을 가로지르는 삼포해안길을 소개한다.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 삼포길의 첫 번째 포구 미포가 있다. 높은 빌딩 사이 아담하게 자리한 미포는 해운대 와우산(臥牛山)의 꼬리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길을 따라 성업 중인 횟집이 줄지어 있고 바다 앞 방파제 사이사이에는 월척을 기다리는 낚시객들이 조용히 먼 바다를 응시한다. 미포에는 오륙도까지 운행하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길을 걷다 조금 더 가까이 바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잠시 오륙도에 다녀올 수도 있다.  미포의 핫플레이스는 뭐니 뭐니 해도 미포철길이다. 다음 포구 청사포로 이어지는 이 철길은 본래 동해남부선이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지난 2013년 폐선 된 후 산책로로 재탄생해 지금은 많은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철로 바깥으로 곧바로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은 여행자와 부산시민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철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경험은 사라져 간 것들에 대한 연민까지 더해 준다.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터널이 나오는데 미포철길 최고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장소다.  철길을 따라 청사포로 가는 구간 외에 미포에서 문탠로드를 통해 청사포로 향하는 코스도 있다. 달맞이길과 해변의 중간 언덕에 위치한 숲속 산책로인 문탠로드는 달빛을 받는 길이란 이름에 걸맞게 밤이 되면 예쁜 조명들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우거진 해송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던 바다가 전망대를 만나면 거침없이 펼쳐진다.  미포철길 그리고 문탠로드의 끝은 청사포다.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한 청사포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 낚시애호가들의 성지로도 꼽힌다. 빨간색 하얀색 쌍둥이 등대가 덤덤한 듯 서 있는 작은 포구. 아스라한 수평선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드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렇게 청사포는 오감으로 바다를 느끼게 한다.  최근 이 작은 포구에 다릿돌전망대가 완공돼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경험까지 선사한다.  다릿돌전망대에서 철길은 다시 구덕포로 이어진다. 삼포해안길의 마지막 포구 구덕포에 이르는 길엔 철로 사이 피어오른 이름 모를 야생화와 풀들이 생명을 더한다. 걷기에 지친 여행자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한다.  앞서 두 포구에 비해 한층 소박한 분위기의 구덕포는 바다의 여유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지나온 철길의 끝에서 만나는 구덕포 앞바다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모두 하얀 포말이 돼 날아간다. 해안을 따라 형성된 길고 좁은 도로를 걷다 보면 서퍼들의 성지 송정해수욕장에 다다른다.  삼포해안길은 부산 대표 포구 미포, 청사포, 구덕포를 연이어 따라 걷는다해 이름 붙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느리게 걷다보면 탁 트인 바다풍경에 절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 원 글에 소개되었던 ‘미포철길’은 공사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ITEMCNTNTS>  <PLACE>삼포해안길</PLACE>  <SUBTITLE/>  <TITLE>부산의 삼대 포구, 삼포해안길로 나는 갈테다!</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6001</LAT>  </item>  <item>  <MAIN\_TITLE>기장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해안길</CATE2\_NM>  <LNG>129.2112</LNG>  <MIDDLE\_SIZE\_RM1/>  <UC\_SEQ>352</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이미 섭렵한 여행자라면, 부산 기장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부산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기장 해안산책로를 소개한다!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추천코스&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공수마을 – 해동용궁사 – 국립수산과학관 – 아난티코브 –오랑대공원 - 연화리 - 대변항&lt;/p&gt;  작고 아름다운 포구 공수마을은 말발굽 모양을 닮은 한적한 해안마을이다. 아담한 어촌이지만 그 유명한 기장미역 생산지이기에 봄이 되면 갓 채취한 미역을 말리는 진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방파제의 빨간 등대를 마주하고 툭 튀어나온 암석 위 소나무언덕이 묘한 절경을 연출한다. 마을과 이어지는 갯바위는 강태공과 바다새의 천국이다.  해송과 대숲이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해동용궁사로 발길을 재촉한다. 바다 절경을 즐기기엔 해동용궁사만한 곳이 없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앞마당인 사찰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까지 내려온다 하니 더욱 지나칠 수 없다. 경건한 마음으로 소원 하나 빌고 수산과학관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들어선다.  바다와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수산과학관. 해양수산에 대한 지식도 쌓고 미래 해양기술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산과학관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전경이 끝내주는 곳이다. 기장해안산책로를 걷는 뚜벅이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 준다.  힐튼부산 아난티코브가 기장에 왔다. 기장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이곳은 호텔인 듯, 호텔 아닌, 호텔 같은 마을이다. 그래서 아난티코브 타운이라 이름 지었나. 숙박 뿐 아니라 문화향유와 여가생활을 타운 내에서 즐길 수 있다. 슬슬 배고파오는 시간에 방문하면 딱인 곳.  기장의 어촌마을은 하나같이 작고 귀엽다. 동암포구를 지나쳐 오랑대공원에 이른다. 솟아오른 기암괴석 꼭대기에 어부들의 안전한 뱃길을 염원하는 제단인 용왕단이 자리해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울퉁불퉁 바위길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용왕단까지 오르면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린다.  이어지던 해안길이 어느 새 끝이 나고 내륙으로 잠시 연결된다. 멀리서 바라보는 마징가Z와 태권V 등대가 너무 깜찍하다. 이 등대를 지나면 연화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기장 연화리는 싱싱한 해산물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해녀들이 직접 따 올린 살아있는 해산물과 따끈한 전복죽은 어느 새 연화리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전국구로 유명한 기장 멸치와 기장 미역이 여기 대변항 출신이다. 봄이면 어부들의 멸치털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멸치축제가 열린다. 조업을 끝낸 배들이 정박해 있는 조용한 항구를 여유롭게 걷는다. 양쪽으로 늘어선 천막은 모두 멸치, 멸치젓, 그리고 미역이 대세다. 멀리까지 왔으니 한 봉지는 손에 들려야 제 맛, 멸치냐 미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산 도심을 스피디하게 즐기는 여행도 좋지만 바다를 벗 삼아 올망졸망 걸으며 슬로(slow)부산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를. 이번에는 기장해안산책로 도~전!  </ITEMCNTNTS>  <PLACE>기장해안산책로</PLACE>  <SUBTITLE/>  <TITLE>슬로(slow)부산을 만난다. 기장해안산책로 유명 스폿 따라잡기</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humbL</MAIN\_IMG\_THUMB>  <LAT>35.184452</LAT>  </item>  <item>  <MAIN\_TITLE>화지산 치유숲길</MAIN\_TITLE>  <CATE2\_NM>숲길</CATE2\_NM>  <LNG>129.06126</LNG>  <MIDDLE\_SIZE\_RM1/>  <UC\_SEQ>356</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어린이대공원에서 출발하여 화지산 치유숲을 거쳐 부산 시민공원까지, 초록의 자연을 눈에 담으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트레킹에 나선다.  화지산과 이어진 백양산 자락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성지곡 수원지를 중심으로 싱그러움 가득한 자연림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종의 크고 작은 수목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울창하게 자란 수목들 덕에 마치 이곳은 부산의 도심이 아닌 것 같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어디쯤을 걷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한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화지산을 향해 걷는 길은 평평한 흙길의 연속이다. 빼곡한 송림 사이로 편안한 차림의 등산객들이 제법 보인다. 사실, 화지산은 등산을 목적으로 오르는 산이라기보다 뒷동산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그 덕에 누구나 쉽게 산에 오르며 치유숲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초록이 우거진 숲길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벌써 치유가 시작된 걸까.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듯하다.  화지산 정상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접어들자 이리 저리 휜 소나무군락이 멋진 광경을 선사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소나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했던 것일까. 바람에 실려 오는 솔향기를 음미하며 감사함을 전한다. 여기저기 떨어진 솔방울 하나도 조심조심 비켜가니 곧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이 보인다.  정상을 찍었으니 이제 내려갈 차례다. 부산시민공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반갑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톤치드향 가득한 편백숲을 만난다. 이 곳에서는 쭉 뻗어 올라간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 점점 더 느리게 걷게 된다. 아예 자리를 잡고 잠시 쉬어가도 좋겠다. 시민공원이 더욱 가까워진 곳에서 천연기념물 배롱나무를 본다. 뜨거운 여름날에 꽃을 피우기 시작해 백일 동안을 화려하게 지내는 배롱나무. 꽃이 필 무렵 다시 오자 약속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화지산에서 부산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다리로 접어든다. 일명 에코브릿지. 낮에는 사람이, 밤에는 동물이 이동하는 생태통로이다.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다리로구나.  에코브릿지를 통해 도착한 부산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주둔기를 지나 100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땅으로 의미가 크다. 공원 정중앙 광활한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자연, 문화, 놀이가 한데 어울린 테마형 공원으로 치유트레킹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전포천을 거닐며 마음에 여유를 충전한다. 메타세과이어 길, 플라타너스 숲길, 동백나무 미로정원이 눈을 맑게 해준다. 대형분수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가 조금 남았을지 모를 피로감을 날려버린다. 푸른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를 간질거린다.  이 즐거운 공간이 100년 동안이나 우리 땅이 아니었다니. 지난 역사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지우지만 않는다면 오욕의 역사도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나무 그늘아래 한 자리 하니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ITEMCNTNTS>  <PLACE>화지산 치유숲길</PLACE>  <SUBTITLE/>  <TITLE>걷는 곳곳 힐링, 나무와 함께 하는 화지산 치유숲길</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humbL</MAIN\_IMG\_THUMB>  <LAT>35.183876</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6</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2) [부산도보여행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2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도보여행 영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도보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영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En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24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58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콘텐츠명 |
| CATE2\_NM | 구분 | 100 | 0 | City Trails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1163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3874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Choryang Ibagu-gil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Choryang Ibagu-gil, yesterday’s memories blossoming into stories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Let’s have a lively conversation | 부제목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Walk for 2 min from Exit 7 of Busan Station, or walk for 8 min from Exit 1 of Choryang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Get off Bus 26, 27, 40, 41, 59, 81, 87, 103, 1003, or 1004 at Busan Station and walk for 2 min  Parking : Near public parking lot | 교통정보 |
| MIDDLE\_SIZE\_RM1 | 기타정보 | 500 | 0 |  | 기타정보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Houses are packed on the midslope of the mountains surrounding Busanhang Port.  Refugees who left their hometowns to come to Busan climbed up the mountains to build the villages. As long as there was work, people would go up and down 168 Stairs multiple times a day to the dock, station, and Gukje Market.  Let’s go see Choryang Ibagu-gil, a storytelling path narrated by people who did not even speak the Gyeongsang-do Province dialect.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Choryang Ibagu-gil&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Former Baekje Hospital - Namseon Warehouse Site – Choryang Church - 168 Stairs - Kim Min-bu Observatory - Ebagu Archive Center - Chang Kee-ryo Memorial Hall - Yoo Chi-hwan Postbox Observatory&lt;/p&gt;  As soon as you leave Busan Station, you will learn the special story of Busan. The starting point of Choryang Ibagu-gil—the magnificent former Baekje Hospital and redbrick Namseon Warehouse Site at the narrow alley across the Busan Station building, where only the walls remain—clearly reveal the passage of time. The two most brilliant buildings of the 1920s bring people back in time to imagine their former glory.  Let’s visit the Choryang Church built by foreign missionaries. This was a gathering place for those who opposed paying tributes to the shrines and carried out anti-Japanese movements. The narrow alley trail along the walls of Choryang Elementary School reveals the passage of time. Photos show the joys and sorrows of the refugees.  There’s no way that the Kkakkomak Shanty Town, which did not even have a road, was equipped with a water supply. Residents had to climb up and down the 168 Stairs to draw water from the well. Now, only the well site remains. The monorail next to the staircase gives visitors a sense of how much time has passed by.  Catch your breath at the Kim Minbu Viewing Point, and head over to the Ebagu Archive Center. The Ebagu Archive Center is an exhibition space that displays little stories on the mountainside road of Choryang. The mountainside town, looking like it would touch the sky, is full of households that have tons of interesting stories to tell. It is a place that narrates the difficulties of life without exaggeration.  Doctor Chang Kee-ryo was a surgeon who treated poor refugees for free without a place that he could call home for his entire life. Learn the beauty of voluntary poverty at the Chang Kee-ryo Memorial Hall “The Nanum,” where Doctor Chang’s noble medical endeavors are celebrated. At the Yoo Chihwan Postbox Observatory located at the end of the mountainside road where the village bus wraps up the journey on Choryang Ibagu-gil, you can see the Busanhang Port.  Have your own chat at the historic alley. While following the stories, you will learn that “Ibagu” is a dialect that means “story,” and that “ Kkakkomak,” means “a difficult path to hike the hill.”  Choryang Ibagu-gil is a journey that continues for us as it did for the refugees.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En?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초량이바구길</MAIN\_TITLE>  <CATE2\_NM>City Trails</CATE2\_NM>  <LNG>129.03874</LNG>  <MIDDLE\_SIZE\_RM1/>  <UC\_SEQ>58</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Walk for 2 min from Exit 7 of Busan Station, or walk for 8 min from Exit 1 of Choryang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Get off Bus 26, 27, 40, 41, 59, 81, 87, 103, 1003, or 1004 at Busan Station and walk for 2 min  Parking : Near public parking lot</TRFC\_INFO>  <ITEMCNTNTS>Houses are packed on the midslope of the mountains surrounding Busanhang Port.  Refugees who left their hometowns to come to Busan climbed up the mountains to build the villages. As long as there was work, people would go up and down 168 Stairs multiple times a day to the dock, station, and Gukje Market.  Let’s go see Choryang Ibagu-gil, a storytelling path narrated by people who did not even speak the Gyeongsang-do Province dialect.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Choryang Ibagu-gil&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Former Baekje Hospital - Namseon Warehouse Site – Choryang Church - 168 Stairs - Kim Min-bu Observatory - Ebagu Archive Center - Chang Kee-ryo Memorial Hall - Yoo Chi-hwan Postbox Observatory&lt;/p&gt;  As soon as you leave Busan Station, you will learn the special story of Busan. The starting point of Choryang Ibagu-gil—the magnificent former Baekje Hospital and redbrick Namseon Warehouse Site at the narrow alley across the Busan Station building, where only the walls remain—clearly reveal the passage of time. The two most brilliant buildings of the 1920s bring people back in time to imagine their former glory.  Let’s visit the Choryang Church built by foreign missionaries. This was a gathering place for those who opposed paying tributes to the shrines and carried out anti-Japanese movements. The narrow alley trail along the walls of Choryang Elementary School reveals the passage of time. Photos show the joys and sorrows of the refugees.  There’s no way that the Kkakkomak Shanty Town, which did not even have a road, was equipped with a water supply. Residents had to climb up and down the 168 Stairs to draw water from the well. Now, only the well site remains. The monorail next to the staircase gives visitors a sense of how much time has passed by.  Catch your breath at the Kim Minbu Viewing Point, and head over to the Ebagu Archive Center. The Ebagu Archive Center is an exhibition space that displays little stories on the mountainside road of Choryang. The mountainside town, looking like it would touch the sky, is full of households that have tons of interesting stories to tell. It is a place that narrates the difficulties of life without exaggeration.  Doctor Chang Kee-ryo was a surgeon who treated poor refugees for free without a place that he could call home for his entire life. Learn the beauty of voluntary poverty at the Chang Kee-ryo Memorial Hall “The Nanum,” where Doctor Chang’s noble medical endeavors are celebrated. At the Yoo Chihwan Postbox Observatory located at the end of the mountainside road where the village bus wraps up the journey on Choryang Ibagu-gil, you can see the Busanhang Port.  Have your own chat at the historic alley. While following the stories, you will learn that “Ibagu” is a dialect that means “story,” and that “ Kkakkomak,” means “a difficult path to hike the hill.”  Choryang Ibagu-gil is a journey that continues for us as it did for the refugees.  </ITEMCNTNTS>  <PLACE>Choryang Ibagu-gil</PLACE>  <SUBTITLE>Let’s have a lively conversation</SUBTITLE>  <TITLE>Choryang Ibagu-gil, yesterday’s memories blossoming into stories</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35</LAT>  </item>  <item>  <MAIN\_TITLE>절영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04251</LNG>  <MIDDLE\_SIZE\_RM1>Wheelchair access section available (Entrance to the Jeoryeong Coastal Trail – Huin-yeoul Coastal Tunnel / Jeoryeong Haeranggil Trail)</MIDDLE\_SIZE\_RM1>  <UC\_SEQ>25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Get off Bus 508, 6, 7, 70, 71, 82, 85, 9, Yeongdo-gu 1 or Yeongdo-gu 5 at Busan Healthcare High School.</TRFC\_INFO>  <ITEMCNTNTS>Busan is known for its ocean! Have you been to many beaches? If you want to enjoy the unique charm of Busan’s sea, try the Jeoryeong Coastal Trail!  Jeoryeong Coastal Trail, located at the entrance of Taejongdae Park in Yeongseon-dong, Yeongdo-gu, Busan, is a three-kilometer coastal trail that departs at the management office of Namhang-dong and passes through Jungnihang Port and Gamji Coastal Trail up to the Taejongdae Park.  The place used to be a military-protected area because of its steep and perilous topography. Since 2001, it was renovated into a walking trail and is now established as a national tourist attraction. The tile mural paintings that are formed along the walls of the walking trail and the wave-patterned flooring are in harmony with the view of the ocean, adding coolness to the scenery.  Walking along the Jeoryeong Coastal Trail, you’ll see female divers from the Namhang Village Group who are harvesting seafood. The cozy Women Diver Village located right after the Huin-yeoul Coastal Tunnel is where you’ll see raw seafood caught from the ocean. You can walk along the trail and stop by the village to enjoy a meal with the fresh flavors of the ocean.  Selected as one of the five coastal trails of Korea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2014, the trail offers more. You can climb up the rainbow-colored piano steps to reach the Huinnyeoul Observatory where you can see the dreamy seascape of the Namhang anchoring basin. Alternatively, you can go directly to the Huin-yeoul Coastal Tunnel that measures 70 m long and is full of colorful lighting and brilliant photozones for tourists to enjoy.  Get off the Huin-yeoul Coastal Tunnel and come across an entirely different coastal road. The West Coast Trail of Yeongdo is well preserved in its natural setting. Watching the vertical precipice and sound of waves crash against the rock will relieve your stress and worries. Moreover, the suspension bridge that connects rocks is a fun structure to cross on the long walking trail.  Walk through the forest path to get to the Jeoryeong Haeranggil Trail, which features several viewing spots with access to the open sea. Along them, the Haneul Observatory Skywalk will make you feel a dizzying but powerful sensation like you are walking on the ocean. There is also 75 Plaza, formed in 1975, which is a place where tourists can rest and a hot culture spot where you can see as far as Tsushima Island on a clear day. The horizon is on one side, and the Huinnyeoul Village is on the other. The relaxing breeze from the ocean will sweep away your hardships and sadness.  Walking along the dynamic waves of the Jeoryeong Coastal Trail will allow you to experience freedom and relaxation. This magnificent natural landscape is a precious treasure of Yeongdo.  </ITEMCNTNTS>  <PLACE>Jeoryeong Coastal Trail</PLACE>  <SUBTITLE>Walk the trail alongside the ocean</SUBTITLE>  <TITLE>Healing through walking, Jeoryeong Coastal Trail</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humbL</MAIN\_IMG\_THUMB>  <LAT>35.080116</LAT>  </item>  <item>  <MAIN\_TITLE>달맞이길/문탠로드</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1807</LNG>  <MIDDLE\_SIZE\_RM1>Disabled restrooms; disabled parking; wheelchair accessible</MIDDLE\_SIZE\_RM1>  <UC\_SEQ>28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Exit 1 of Haeundae Station on Busan Metro Line 2 → Transfer to Village Bus Haeundae-gu 2 or Haeundae-gu 10  Get off Bus 100, 139, 141, 200, 39, 1003, or 141 (night) at the entrance to Mipo Moontan Road  Get off Village Bus Haeundae-gu 2 or Haeundae-gu 10 at Ilsin Haila Villa; Get off Village Bus Haeundae-gu 7 at Dalmaji Nursing Hospital  Busan City Tour Bus: Haeundae Beach (Blue line) → Get off at Dalmajigil Road  Parking: Near public parking lot</TRFC\_INFO>  <ITEMCNTNTS>The starting point of Haeundae Sampogil Road and the road that connects Galmaetgil Trail 1 to Galmaetgil Trail 2.  A popular driving course of Busan with beautiful a moonrise.  A road with a view of the blue ocean during the day and the moonlight at night.  If Paris has Montmartre Hill, Busan has the Dalmajigil Road.  The Dalmajigil Road requires climbing up the Dalmaji Hill, but the slope up does is not troublesome at all. Thanks to the rising level, Haeundae Beach, Dongbaekseom Island, and Gwangandaegyo Bridge come into view simultaneously. The beautiful cafés and romantic restaurants located along the stone wall path make visitors’ hearts flutter with anticipation.  Haewoljeong Pavilion waits at the midpoint of Dalmajigil Road. The elegant pavilion serves as the ideal place for visitors to sit and rest their legs. As the best spot to view the moonrise at the Dalmajigil Road, the pavilion is one of the magnificent eight sights of Korea that can be enjoyed at the sea of Haeundae. Legend has it that love comes true for those who exchange their vows under the moonlight on the 15th of January.  Let’s walk down the forest path that connects Haewoljeong Pavilion to Moontan Road, where the blue sea peeks through the thick pine forest. You can start walking on the forest path at the entrance of the Moontan Road at the beginning of Dalmaji Hill, but if you already reached Haewoljeong Pavilion, this path is the fastest way to go to Moontan Road.  Wear a casual outfit and sneakers to stroll along the Moontan Road a forest path under the moonlight, connected to a well-organized walking trail at the beginning of Dalmaji Hill. A full loop back to the starting point is 2.2 km, which takes an hour if you walk leisurely. Should you choose to continue walking on the Donghae Nambu Line instead of returning to the starting point, you will reach the Cheongsapo Port and Songjeong Beach. Lights are turned on between sunset and 11:00 p.m. as well as from 05:00 a.m. until sunset.  Another great charm of the Moontan Road is that even though you are walking on a forest path, you can view the blue ocean endlessly stretch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Pass by the observatory spots scattered around the trail to view the ocean of Busan and relieve all accumulated stress. Listen to the waves, and close your eyes to remove complicated thoughts that clutter your mind.  A slow walk under the moonlight as the ocean breeze blows through the fragrance of the pine.  Walk away from the urban scene of Haeundae, and discover the hidden charms of the region.  </ITEMCNTNTS>  <PLACE>Dalmajigil Road and Moontan Road</PLACE>  <SUBTITLE>Urban forest path </SUBTITLE>  <TITLE>Dalmajigil Road and Moontan Road for the sunrise and moonrise</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humbL</MAIN\_IMG\_THUMB>  <LAT>35.156742</LAT>  </item>  <item>  <MAIN\_TITLE>동백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15263</LNG>  <MIDDLE\_SIZE\_RM1>Disabled restrooms; disabled parking; wheelchair accessible; wheelchair rental available (inside Nurimaru APEC House,), braille block</MIDDLE\_SIZE\_RM1>  <UC\_SEQ>28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Walk for 20 min from Exit 1 of Dongbaek Station on Busan Metro Line 2  Get off Bus 139, 307, or 1003 at the entrance to Dongbaekseom Island  Busan City Tour Bus: Busan Station (Red Line) → Get off at Haeundae Beach  Parking: Dongbaek Park Parking Lot</TRFC\_INFO>  <ITEMCNTNTS>Walk along the Haeundae Beach deep in thought while looking out at the open sea to reach the cozy Dongbaekseom Island located at the end. Formerly an island, the coastal trail is now connected to the land through years of sedimentation. The people of Busan, however, still refer to the place as Dongbaekseom Island.  Dongbaek Park, built with the natural elements of the area still intact, is a beautiful place with a dense habitation of black pine. The 950 m long coastal trail formed around Dongbaekseom Island is just enough to take a leisurely stroll and organize the day’s work.  Walk a bit longer past the first observatory deck to see a lone rock statue. The Mermaid Statue was sculpted based on the myth of Princess Hwangok recorded in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Princess Hwangok, who married into a family that lived far away, consoled her longing for her homeland by looking out into the night sea when the full moon illuminated the ocean.  First installed in 1974, the statue was damaged in the 1987 typhoon. With the statue’s remaining upper body stored at the Busan Museum, the statue currently on view at Dongbaekseom Island was newly sculpted in 1989.  Walk along the connecting sea path to reach the Suspension Bridge. On parts of the bridge, you can see the ocean below. The bridge, however, is fairly short and installed on a moderately high location, which means that even those with fear of heights, including children, may safely cross.  The coastal trail connects to a white lighthouse and a wide observatory, where you can look out into the ocean to see the Nurimaru APEC House and Gwangandaegyo Bridge. Turn your gaze a bit to the left to see the Oryukdo Islets. This is a great spot to view the sea of Busan all at once.  The Nurimaru APEC House hosted the Busan APEC Summit in 2005. At the main meeting room, the circular formation of the chairs of Asian and Pacific leaders who attended the summit are on display alongside the meals and gifts provided during the event. The modern exterior perfectly harmonizes with the magnificent view of Haeundae, making the venue a unique international meeting place.  At Dongbaekseom Island, you can experience the ocean, forest, and nature in their natural state. Walk along the coastline, and view the symbolic architecture that represents Busan. The Dongbaek Coastal Trail is a must-visit destination during your trip to Haeundae.  </ITEMCNTNTS>  <PLACE>Dongbaek Coastal Trail</PLACE>  <SUBTITLE>Dongbaek Coastal Trail containing the charms of Busan</SUBTITLE>  <TITLE>Walk along the sea and mountain of Busa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humbL</MAIN\_IMG\_THUMB>  <LAT>35.151962</LAT>  </item>  <item>  <MAIN\_TITLE>피란수도길</MAIN\_TITLE>  <CATE2\_NM>City Trails</CATE2\_NM>  <LNG>129.01738</LNG>  <MIDDLE\_SIZE\_RM1/>  <UC\_SEQ>30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On June 25, 1950, the Korean War began with a surprise attack on neighboring South Korea at dawn. Unprepared to fight, South Korea lost its capital, Seoul, in three days after the war broke 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no option but to retreat and declared Busan as the wartime capital on August 18, 1950. Although it has been almost 70 years since then, Busan still has traces of the war. Let us follow these historical traces filled with joys and sorrows.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Wartime Capital Trail&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Tombstone Cultural Village - Cloud Observatory – Choi Min-Shik Gallery – Train House Artistic Cultural Experience Ground -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 Seokdang Museum&lt;/p&gt;  In Ami-dong, Seo-gu, Busan, there is Tombstone Culture Village, where you can have a glimpse of the kind of life that refugees experienced. Away from the war, many Koreans fled to Busan without a plan and settled down at the foot of a mountain, with a cemetery built by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t that time,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because there were hardly any materials. Nevertheless, as a way to stay out of the wind and rain, they built shelters on top of the tombstones in the cemetery. You can still find traces at the alleys in Tombstone Culture Village.  In a 3 min walking distance from Tombstone Culture Village, you can reach the “Cloud Observatory” with a panoramic view of mountainside road across Ami-dong. Refugees from the Korean War built their homes on hillsides, despite not owning any lands. As you observe the houses standing side by side along the alleys that are too narrow, even for one person to pass through, you will see and feel the broken and exhausted faces of the refugees.  In a town located right below the observatory, Choi Min-Shik Gallery, one of the must-visit places, vividly portrays the lives of the refugees. Choi Min-Shik is a first-generation Korean documentary photographer based in Busan, particularly known for taking photographs of people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In this gallery, you can find various post-war Busan photos, including a woman selling goods at Jagalchi Market and a child with a bright smile on his sooty face. These old photos will let you see and reflect the hardship that the refugees underwent to survive, as they hold on to a dim light of hope, despite feeling exhausted and shattered by the event.  Located next to Choi Min-Shik Gallery, Train House Artistic Cultural Experience Ground is also a must-visit place. The words “Train House” came from several people who lived in a small room after dividing into many sections similar to train couches. This place signifies the poor conditions that the refugees from the Korean War had to endure to survive. Currently, it is used as an experience center and a resting area for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is a 10 min walk along the ridge from Train House Artistic Cultural Experience Ground. It was formerly used as a presidential residence for about 1,000 days, while Busan was the wartime capital. Furthermore, it was where Rhee Syngman attended to the affairs of state. There is also an exhibition hall with an extensive collection of replicas that invites visitors, including children, to show the lives of the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As you walk from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to Dong-A University, you will find the Seokdang Museum. Originally used as the Temporary Capital Government Building for the wartime capital, it is now transformed into a museum that outlines Busan’s history. Widely known as Busan’s most famous modern building with red bricks and giwa roof tiles, it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because it shows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society—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the Korean War.  Enjoying Busan’s blue ocean and skyscraper is a great way to travel around Busan. Nevertheless,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Busan’s history,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n visit and walk along the Korean War Heritage Trail.  </ITEMCNTNTS>  <PLACE>Wartime Capital Trail</PLACE>  <SUBTITLE/>  <TITLE>Encountering Busan, the wartime capital filled with joys and sorrows of refugees</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humbL</MAIN\_IMG\_THUMB>  <LAT>35.103672</LAT>  </item>  <item>  <MAIN\_TITLE>원도심투어</MAIN\_TITLE>  <CATE2\_NM>City Trails</CATE2\_NM>  <LNG>129.03847</LNG>  <MIDDLE\_SIZE\_RM1/>  <UC\_SEQ>30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Themed travel tours can be wonderful.  If you’re interested in various themed trips, then a gourmet tour for trying must-visit restaurants, an activity tour for exploring various experiences, and a story tour around the original downtown of Busan would be perfect for you. There are not only many things to eat and see but also various old stories about Busan to hear. The tour takes place across Jung-gu, Seo-gu, Dong-gu, and Yeongdo-gu, and it is especially guided by local seniors who have been residents in these areas for a long time.  Let’s take a journey filled with interesting stories that will remind adults of the good old days as they reminisce about the old town of Busan, and give children a meaningful opportunity to gain new experiences.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Choryang Ibagu-gil&lt;/p&gt;  Along the Ibagu-gil Trail in Dong-gu, Busan, you will find traces of Busan in modern times. Taking pride in the glorious past of this area that played a key role in opening ports to foreign trade, the former Baekje Hospital, which has turned to a café with a great atmosphere, and Choryang Church have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because they show modern Korean architectural styles. On the other hand, the mesmerizing, panoramic view of the Busanhang Port, from Kim Minbu Viewing Point to Yoo Chihwan Postbox, will leave you breathless. Furthermore, the 168 Stairs that connects the upper and lower mountain roads are well- known for preserving the heartwarming atmosphere of this old village. Moreover, the monorail installed for local residents who had to climb up and down the steep stairs provides visitors with a unique experience available only in Ibagu-gil.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Gamcheon Culture Village / Korean War Heritage Trail&lt;/p&gt;  Saha-gu and Seo-gu, Busan, are where you can feel what it was like to live as a refugee from the Korean War. In Gamcheon Culture Village, which was formed as Korean refugees settled down on a mountain slope, you can appreciate beautifully crafted murals while walking along the meandering alleys. This village only with the heartbreaking traces of the war eventually turned into a great piece of art that evokes strong emotions, thanks to the endless efforts of local residents and artists. Tombstone Culture Village where the Korean refugees built their homes on top of the tombstones for survival, Choi Min-Shik Gallery that exhibits photos capturing the lives of manual laborers at Jagalchi Market, and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the former presidential residence, have become important cultural heritages of Busan, the wartime capital.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Yongdusan Trail / Gukje Market Trail&lt;/p&gt;  No place can show Busan’s modern history than Jung-gu, as it connects Busan’s past and present, with famous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Choryang Waegwan (a trading platform for Japanese people) built when Korea opened its ports to foreign trade, Busan Department Store with an architectural style influenced by Japan, the Busan Modern History Museum that vividly captures the moments of Busan in modern times, and Daegaksa Temple. Whenever you feel hungry during the tour around this area, you can simply visit Gukje Market, which is previously known as a place for Korean War refugees. The market is also filled with delicious local snacks that look as if there were heartrending and sorrowful stories behind them.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Yeongdo Bridge Trail / Huinnyeoul Village Trail&lt;/p&gt;  Once you have your fill of delicious local snacks, it’s time to visit Yeongdo Bridge, an iconic symbol of Busan. Connecting Jung-gu and Yeongdo-gu, it is Korea’s first bascule bridge used as a meeting point for the refugees of the Korean War. As this area was filled with ship repair facilities in the past and often made the “ping (Kangkang)” sound, it was called “Kangkangee-gil Trail”  Huinnyeoul Village Trail formed along the coastal cliffs in Yeongdo Island has become the most visited tourist destination throughout the year because it is widely known as a filming location. Walking along the coastal trail below the village, you will feel as if the sea in front of Yeongdo Island embraced you in its arms.  </ITEMCNTNTS>  <PLACE>Original Downtown Tour</PLACE>  <SUBTITLE/>  <TITLE>A meaningful story tour around the original downtown of Busa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17</LAT>  </item>  <item>  <MAIN\_TITLE>이기대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12091</LNG>  <MIDDLE\_SIZE\_RM1>Disabled parking; disabled restrooms</MIDDLE\_SIZE\_RM1>  <UC\_SEQ>32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Kyungsung Univ.Pukyong Nat'l Univ. Station of Busan Metro Line 2 → Transfer to Bus or 20, 22, 24, 27, 39, or 131  Village Bus Nam-gu 2 or Nam-gu 8  Parking: Igidae Public Parking Lot (charged)</TRFC\_INFO>  <ITEMCNTNTS>“Igidae” refers to the beautiful bedrocks consisting of delicate rocks  in the eastern sea that the Jangsanbong Peak of Yongho-dong, Nam-gu, faces.  The name “Igidae” stands for the two gisaeng (female professional entertainers in Korean) from the Suyeong district who sacrificed their liv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Korea, when Japan conquered Suyeongseong Fortress and held a feast to celebrate their victory, two gisaeng, who are taken to the feast, grabbed a drunken Japanese commander and jumped into the sea.  The Igidae area was once closed for military operation reasons, but since 1993, it has been open to the public. At present, it contains dense forests that are difficult to meet in urban areas and is kept clean to serve as habitats for wildlife. Because of its clear water, the place is perfect for fishing.  The Igidae Trail, built along with the coastline, offers a gorgeous seashore scenery, which has been loved by many people since it opened. Walking on the trail that extends to the ring road and the Oryukdo Islets, you can enjoy every facet of Busan’s landmark.  The Igidae Coastal Trail, one of the hiking tracks of Nam-gu, is 4.7 km long, stretching from Dongsaengmal Trail - Global Gathering - Nongbawi Rock - Eoulmadang - Oryukdo Quay (2.5 hr walk). The hiking track starts from the bottom of Igidae View and continues along with the coastal cliffs, providing a dramatic scenery that embraces Gwangandaegyo Bridge, Busan Yacht Mooring Area, Marine City, Dongbaekseom Island, Nurimaru APEC House, and Haeundae Beach beyond the sea.  The Igidae Coastal Trail is part of the two famous trails, the Galmaetgil Trails and Haeparang Trail (Oryukdo Islets to Goseong). There, you can find diverse signposts on the walkway.  After passing through the Dongsaengmal Trail, you’ll be walking on the overbridge reaching the Global Gathering. This place, where many tourists stop by, offers a perfect sunset view and is famous for appearing on the background of the movie “Haeundae.”  Walking along the coastline, you can witness the exotic scenery made by coastal cliffs and the wave-built terrace. This place is the Busan National Geopark area that preserves rich geo-heritages, such as sea caves and potholes (marine potholes). The rocks with unique shapes have their own names, providing entertainment as you guess which is called what.  Once you go over the hill following the trail, you will reach Oryukdo Sunrise Park, a famous place to enjoy both sunset and sunrise. The skywalk in this park is built with glass, providing you a thrilling experience.  Anywhere on the Igidae Coastal Trail, you can pause to feel the breeze blowing from the ocean.  All your worries will disappear, with only the scenery of the blue ocean occupying your mind.  This is what we call a “good walkway.”  </ITEMCNTNTS>  <PLACE>Igidae Coastal Trail</PLACE>  <SUBTITLE>Beautiful scenery, painful history</SUBTITLE>  <TITLE>Igidae Coastal Trail the best hiking trail in Busa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humbL</MAIN\_IMG\_THUMB>  <LAT>35.130497</LAT>  </item>  <item>  <MAIN\_TITLE>삼포해안길</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17104</LNG>  <MIDDLE\_SIZE\_RM1/>  <UC\_SEQ>34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Today, people are used to their busy lives that they forget to have a moment for themselves. Take a break from your hectic routine and have a lovely stroll at Sampo Coastal Trail across Haeundae and Songjeong to relax and regain peace of mind.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Sampo Coastal Trail&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Mipo Port - Mipo Railroad / Moontan Road – Cheongsapo Port - Daritdol Observatory - Mipo Railroad – Gudeokpo Port&lt;/p&gt;  As your first destination on the Sampogil Road, Mipo Port is located at the end of Haeundae Beach. This small port is nestled among tall buildings and looks like the tail of Wausan Hill in Haeundae. You will see crowded sushi restaurants along the road and anglers between seawalls gazing over the sea, waiting for big fish. In Mipo Port, there is a quay for pleasure boats that are bound for Oryukdo Islets.  The no. 1 famous attraction in Mipo Port is Mipo Railroad, which extends to the next port, Cheongsapo. This railroad was designed to function as one of the tracks for the Donghae Nambu Line. However, it was remodeled to be a walking trail after being decommissioned in 2013 and now is widely known by many tourists.  The scenery with the railroad surrounded by the vast ocean attracts both tourists and locals in Busan. As you walk along the tracks, you will have a deep appreciation for what has been lost. For such memories to last, walk further on the trail where you will find a small tunnel for a photozone, which is most loved in Mipo Railroad.  You can either choose to follow the railroad reaching Cheongsapo Port or start from Mipo Port and pass through Moontan Road to the port. Moontan Road, a forest path on the hill between Dalmajigil Road and the beach, is especially beautiful at night, with the glistening light well matched to its name, meaning a road to meet the moon. Once you reach the observatory, you can finally see the unblocked view of the vast ocean that occasionally shows itself between the spreading pine trees on the way.  At the end of Mipo Railroad and Moontan Road, you will make it to Cheongsapo Port, which is known for the clear and clean seawater and visited by enthusiastic anglers for its abundant fish stocks. The small port where red and white lighthouses stand like twins in a peaceful atmosphere with the horizon from a distance, the sound of crashing waves, and the salty scent of the oceans carried by the wind. As such, Cheongsapo Port is the perfect place to feel the ocean with your five senses.  Recently, in this small port, Daritdol Observatory has finished its construction to give a thrilling experience on a skywalk as if you’re walking on the ocean.  From Daritdol Observatory, the railroad can lead you back to Gudeokpo Port. As you make your way to the last destination of Sampo Coastal Trail, you will encounter unknown wildflowers and plants that give vibrant energy to the tourists tired from all the walking.  Compared to the prior two ports, Gudeokpo Port gives off a calm and relaxing atmosphere, which makes itself as the best place to enjoy a luxurious time near the ocean. The coastal waters of Gudeokpo that you will see at the end of the railroad will whisk your worries away like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rocks.  Sampo Coastal Trail means a walking trail that connects the three (sam) and ports (po), which are Mipo Port, Cheongsapo Port, and Gudeokpo Port. Have a relaxing time away from your busy life by taking a stroll on the trail and basking in the clear view of the ocean.  \*\*\* The Mipo Railroad introduced in the original article is closed for construction until June 2020.  </ITEMCNTNTS>  <PLACE>Sampo Coastal Trail</PLACE>  <SUBTITLE/>  <TITLE>Head to Sampo Coastal Trail, and visit three major ports in Busa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6001</LAT>  </item>  <item>  <MAIN\_TITLE>기장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Coastal Trails</CATE2\_NM>  <LNG>129.2112</LNG>  <MIDDLE\_SIZE\_RM1/>  <UC\_SEQ>352</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If you have already visited all the must-see attractions in Busan, how about the Gijang-gun county?  We recommend Gijang Coastal Trail for you to witness the brand-new Busan.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Recommended Itinerary&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Gongsu Village - Haedong Yonggungsa Temple - Fisheries Science Museum - Ananti Cove - Orangdae Park - Yeonhwa-ri - Daebyeonhang Port&lt;/p&gt;  Resembling a horse’s hoof, Gongsu Village is a small but beautiful and peaceful fishing village in the coastal zone. It is widely known for cultivating seaweed, and in spring, you will see a unique custom, where freshly harvested seaweed is hanged up to dry. Moreover, the panoramic view of the pine tree hills beyond the projecting rock, facing the breakwater’s red lighthouse, arouses a mysterious feeling inside you. The rocks on the seashore connected to the village are known as the “heaven” for anglers and seabirds.  Now, pick up the pace as you follow the trail surrounded by pine trees and bamboo groves, heading to Haedong Yonggungsa Temple. It is one of the few temples in Korea that show the emerald ocean. People do not simply pass by the temple; they believe in the legend that at least one of your wishes will be answered here. Make a wish with reverence, and head back to the trail that leads to Fisheries Science Museum.  Fisheries Science Museum is located in the area nearest to the ocean. In this museum, you can learn about marine resources and future marine technologies. In particular, you will find a breathtaking aerial view on the observatory, which provides a great resting place for hikers traveling Gijang Coastal Trail.  Gijang-gun is also the place where Ananti Cove (Hilton Busan) is located. Famous for the vast blue ocean view of Gijang, it is more like a town, not just a hotel, as a complex for cluster and leisure; hence, the name Ananti Cove Town. This place is highly recommended when you want to eat food during your trip.  Fishing villages in Gijang are all small and cute. Pass by Dongam Port, and head to Orangdae Park, a unique park with the Yongwangdan Altar installed on top of a unique rock formation that wishes the fishers’ safe seaway. Walk slowly following the bumpy and rocky road to reach up to the Yongwangdan Altar, where you can hear the sound of ocean waves crashing against the rocks on the shore.  Here lies the end of the coastal trail. From a distance, the lighthouses called Mazinger Z and Taekwon V appear as interesting infrastructures. Once you pass them, you are close to Yeonhwa-ri in Gijiang-gun. This small village is famous for fresh seafood that a haenyeo (female diver) freshly cultivates and its warm Jeonbok-juk (abalone rice porridge), a beloved Yeonhwa-ri specialty.  Anchovies and seaweed cultivated in Daebyeonhang Port are well known nationwide. Every spring, the port holds the Anchovy Festival, where you can see fishers shaking off anchovies from a net. Take a relaxing time, strolling around the peaceful port with boats on the berth. Both sides are lined with stalls that mostly sell anchovies, salted anchovies, and seaweed products. You will not miss the opportunity to buy a bag of them. Choose anchovy or seaweed, or simply buy both of them.  You may prefer a relaxing trip to take a stroll and enjoy the ocean in Busan from a closed-packed schedule in the center. If so, Gijang Coastal Trail is here for you!  </ITEMCNTNTS>  <PLACE>Gijang Coastal Trail</PLACE>  <SUBTITLE/>  <TITLE>A “slow” trip to Busan to visit trending attractions in Gijang Coastal Trail</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humbL</MAIN\_IMG\_THUMB>  <LAT>35.184452</LAT>  </item>  <item>  <MAIN\_TITLE>화지산 치유숲길</MAIN\_TITLE>  <CATE2\_NM>Forest Trails</CATE2\_NM>  <LNG>129.06126</LNG>  <MIDDLE\_SIZE\_RM1/>  <UC\_SEQ>356</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Starting from Children’s Grand Park, through Hwajisan Mountain Healing Forest, to Busan Citizens Park, prepare for trekking to calm your mind and body with green nature.  Located in the foot of Baegyangsan Mountain connected to Hwajisan Mountain, Children's Grand Park is perfect for enjoying the evergreen natural forests, full of various small and big trees mainly in Seongjigok Reservoir. With lush trees, you’d feel like you’re traveling in a remote countryside, even though you’re in the center of Busan.  The flat dirt paths extend from Children’s Grand Park toward Hwajisan Mountain. A few hikers in their casual clothes are walking among thick pine trees. Hwajisan Mountain is more like a back garden than a mountain for climbing, so anyone can easily climb the mountain and enjoy the healing forest. Walk along the evergreen forest, and breathe in fresh air to soothe your mood with nature’s therapy.  As you enter the path to climb up the summit of a mountain, you’ll find wonderful places that the community of pines in different shape offers. Suddenly, you’ll begin to wonder when countless trees have appeared. Now, you feel a sense of gratitude with the pine trees’ fragrance, blowing through the forest. Continue walking while steering through pine cones, and soon, you’ll notice the stone marker indicating that you’re near the peak.  Now, it’s time to go down from the peak that you’ve reached. The sign that shows the way to Busan Citizens Park greets you. Before long, you’ll witness a cypress forest carrying the scent of phytoncide. Once you arrive here, take slower steps to enjoy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trees stretched toward the sky, and settle and relax. From your view where the park gets closer, there’s a crape myrtle, Natural Monument of Korea, which blooms on a hot summer day and spends a hundred days splendidly. Return around the blossoming season, and direct the steps forward.  Enter the bridge, known as “Ecobridge,” that connects Hwajisan Mountain to Busan Citizens Park. It is an ecological pathway, where people travel by day and animals by night. Thus, this bridge symbolizes the peaceful coexistence of people and animals.  Busan Citizens Park, which you arrived through the Ecobridge, is a land that was returned to the citizens after 100 years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S force deployment. In the center, there’s a spacious, square lawn surrounded by different themes of nature, culture, and play. Enjoy a relaxing time as you take a stroll around Jeonpocheon Stream across the park. The Metasequoia Tree Road, Platanus Forest Path, and the Camellia Maze Garden will cleanse your soul. The cool water flowing from the large fountain relieves any exhaustion you may have, with children laughing and playing on the green grass tickling your ears.  It’s a pity that this beautiful place has been lost by external forces for 100 years. The past brings pain, but remembering and cherishing the memory could ease it.  Sit under the shade of a tree to bring peace to your mind and body.  </ITEMCNTNTS>  <PLACE>Hwajisan Mountain and Healing Forest Trail </PLACE>  <SUBTITLE/>  <TITLE>Evergreen Hwajisan Mountain and Healing Forest Trail with trees, healing places to walk around</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humbL</MAIN\_IMG\_THUMB>  <LAT>35.183876</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4</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3) [부산도보여행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3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도보여행 일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도보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일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Ja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24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58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콘텐츠명 |
| CATE2\_NM | 구분 | 100 | 0 | 都心の道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1163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3874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草梁イバグキル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草梁イバグキル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イバグの花が咲きました Let’s have a lively conversation | 부제목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都市鉄道：1号線釜山駅7番出口から徒歩2分、草梁駅1番出口から徒歩8分  バス26、27、40、41、59、81、87、103、1003、1004番で釜山駅下車、徒歩2分  駐車：付近の公営駐車場 | 교통정보 |
| MIDDLE\_SIZE\_RM1 | 기타정보 | 500 | 0 |  | 기타정보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山港を中心に、近くの山の中腹にびっしりと立ち並ぶ住宅。  故郷を離れ、釜山に避難してきた人々の街。仕事を求めて埠頭、駅、国際市場に向かう人々が行き来した168階段。  慶尚地方の方言さえ知らなかった人々が咲かせた物語の道。草梁イバグキルに行ってみ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梁イバグキル&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旧百済病院 - 南鮮倉庫址 - 草梁教会 - 168階段 - 金敏夫(キム・ミンブ)展望台 - イバグ工作所 - 張起呂（チャン・ギリョ）ザ・ナヌムセンター - 柳致環(ユ・チファン)郵便ポスト展望台&lt;/p&gt;  釜山駅を出ると、釜山の特別な物語が始まる。釜山駅の向かいの狭い路地にある旧百済病院と南鮮倉庫址が草梁イバグキルの出発点だ。大きな百済病院と、赤レンガの壁だけが残る南鮮倉庫址から、歳月の跡が感じられる。1920年代に最も栄えていたこの町の、当時の状況に想いを馳せる。  外国人宣教師によって建てられた最初の教会、草梁教会に行ってみる。抗日運動を展開し、神社参拝に反対した人々が集まったという。草梁小学校周辺の狭い路地には、歳月の痕跡がたくさん残っている。それぞれの写真の中に、避難民の喜怒哀楽が映っている。  道路さえなかったカコマクの貧民街には、当然水道施設もなかった。168階段を駆け降りてバケツに水を汲み、再び階段を上らなければならない毎日だったはずだ。今は跡地だけが残る井戸や、階段の横を走るモノレールから、歳月の流れを感じる。  釜山出身の天才詩人・金敏夫(キム・ミンブ)を称える金敏夫展望台でひと休みして、イバグ工作所に向かう。イバグ工作所は、草梁山腹道路の様々な物語が展示されている空間だ。山腹道路にある一つひとつの家には様々な物語が存在する。厳しい生活の痕跡を、淡々と伝えている場所だ。  自分の家すら持たず、生涯貧しい避難民を無料で診察した外科医・張起呂(チャン・ギリョ)先生。医術ではなく、「人術」を施したその行跡を記念する張起呂ザ・ナヌムセンターで、貧困を自ら選んだ故人の崇高さを学ぶ。市内バスで行ける山腹道路の交差点にある柳致環(ユ・チファン)郵便ポスト展望台から釜山港を眺めながら、草梁イバグキルの旅を締めくくる。  歳月を感じる路地には、それぞれの物語がある。「イバグ」は「物語」、「カコマク」は「急な峠道」を指す方言だと、旅を終えて気付いた。  草梁イバグキルは、かつての避難民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進み続ける人生の旅だ。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Ja?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초량이바구길</MAIN\_TITLE>  <CATE2\_NM>都心の道</CATE2\_NM>  <LNG>129.03874</LNG>  <MIDDLE\_SIZE\_RM1/>  <UC\_SEQ>58</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釜山駅7番出口から徒歩2分、草梁駅1番出口から徒歩8分  バス26、27、40、41、59、81、87、103、1003、1004番で釜山駅下車、徒歩2分  駐車：付近の公営駐車場</TRFC\_INFO>  <ITEMCNTNTS>釜山港を中心に、近くの山の中腹にびっしりと立ち並ぶ住宅。  故郷を離れ、釜山に避難してきた人々の街。仕事を求めて埠頭、駅、国際市場に向かう人々が行き来した168階段。  慶尚地方の方言さえ知らなかった人々が咲かせた物語の道。草梁イバグキルに行ってみ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梁イバグキル&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旧百済病院 - 南鮮倉庫址 - 草梁教会 - 168階段 - 金敏夫(キム・ミンブ)展望台 - イバグ工作所 - 張起呂（チャン・ギリョ）ザ・ナヌムセンター - 柳致環(ユ・チファン)郵便ポスト展望台&lt;/p&gt;  釜山駅を出ると、釜山の特別な物語が始まる。釜山駅の向かいの狭い路地にある旧百済病院と南鮮倉庫址が草梁イバグキルの出発点だ。大きな百済病院と、赤レンガの壁だけが残る南鮮倉庫址から、歳月の跡が感じられる。1920年代に最も栄えていたこの町の、当時の状況に想いを馳せる。  外国人宣教師によって建てられた最初の教会、草梁教会に行ってみる。抗日運動を展開し、神社参拝に反対した人々が集まったという。草梁小学校周辺の狭い路地には、歳月の痕跡がたくさん残っている。それぞれの写真の中に、避難民の喜怒哀楽が映っている。  道路さえなかったカコマクの貧民街には、当然水道施設もなかった。168階段を駆け降りてバケツに水を汲み、再び階段を上らなければならない毎日だったはずだ。今は跡地だけが残る井戸や、階段の横を走るモノレールから、歳月の流れを感じる。  釜山出身の天才詩人・金敏夫(キム・ミンブ)を称える金敏夫展望台でひと休みして、イバグ工作所に向かう。イバグ工作所は、草梁山腹道路の様々な物語が展示されている空間だ。山腹道路にある一つひとつの家には様々な物語が存在する。厳しい生活の痕跡を、淡々と伝えている場所だ。  自分の家すら持たず、生涯貧しい避難民を無料で診察した外科医・張起呂(チャン・ギリョ)先生。医術ではなく、「人術」を施したその行跡を記念する張起呂ザ・ナヌムセンターで、貧困を自ら選んだ故人の崇高さを学ぶ。市内バスで行ける山腹道路の交差点にある柳致環(ユ・チファン)郵便ポスト展望台から釜山港を眺めながら、草梁イバグキルの旅を締めくくる。  歳月を感じる路地には、それぞれの物語がある。「イバグ」は「物語」、「カコマク」は「急な峠道」を指す方言だと、旅を終えて気付いた。  草梁イバグキルは、かつての避難民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進み続ける人生の旅だ。  </ITEMCNTNTS>  <PLACE>草梁イバグキル</PLACE>  <SUBTITLE>イバグの花が咲きました</SUBTITLE>  <TITLE>草梁イバグキル</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35</LAT>  </item>  <item>  <MAIN\_TITLE>절영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04251</LNG>  <MIDDLE\_SIZE\_RM1>車椅子可能区間あり（絶影海岸散策路入口〜ヒンニョウル海岸トンネル/絶影海浪道）</MIDDLE\_SIZE\_RM1>  <UC\_SEQ>25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バス：508、6、7、70、71、82、85、9、影島区1、影島区5番で釜山保健高校下車</TRFC\_INFO>  <ITEMCNTNTS>釜山と言えば海！でも、海水浴場はもう飽きた？一味違った釜山の海の魅力を見つけに、絶影海岸散策路に行ってみよう！  釜山市影島瀛仙洞、太宗台の入口から伸びる絶影海岸散策路は、南港洞管理事務所から出発し、中里港、甘池海辺ギルを経て太宗台に至る約3kmの海辺の散策路だ。  険しい地形のゆえにかつて軍事保護地域に指定されていたここは、2001年に散策路に生まれ変わり、今では全国的に有名な観光地となった。散策路の塀にはタイル壁画があり、波模様のある道と目の前に広がる海が、爽やかな雰囲気を演出する。  絶影海岸散策路を歩いていると、海女さんが海に潜る様子が見られることがある。南港漁村契に所属する海女さんたちだ。ヒンヨウル海岸トンネルのすぐ近くにある素朴な海女村では、素潜り漁で獲れた天然の海産物が見られる。散策の途中でお腹が減ってきたら、海女村に立ち寄って新鮮な魚介類を味わってみるのもいい。  2014年に国土海洋部が選ぶ「韓国五大海岸ヌリ道」に選ばれた散策路には、様々な観光スポットがある。虹色のピアノ階段を登ると、ヒンヨウル展望台に出る。展望台からは、南港錨泊地の美しい海の風景が一望できる。虹の階段に登らない場合は、ヒンヨウル海岸トンネルに向かおう。長さ70mのトンネルには、色とりどりの照明や華やかなフォトゾーンがたくさんあり、観光客の人気スポットとなっている。  ヒンヨウル海岸トンネルを出ると、雰囲気が一変する。影島の西海岸には、古くからの自然環境がよく保存されている。切り立った崖や岩にぶつかる波を見ていると、自然と胸がスッキリしてくる。岩の間に吊橋がかかっていて、長い散策路でも飽きる暇がない。  森の中を歩いていくと、絶影海浪道に出会う。 絶影海浪道には、海が一望できるビューポイントが多い。ハヌル展望台スカイウォークでは、海の上を歩いているようなスリルが味わえる。近くの75広場は1975年にできたもので、観光客がひと休みでき、天気が良い日には対馬まで見える人気のスポット。彼方には水平線が広がり、振り返るとヒンヨウル村が見えるここで、爽やかな潮風を浴びながら悩みを吹き飛ばそう。  打ち寄せる波を辿って歩きながら、余裕と開放感が味わえる絶影海岸散策路。歩くだけで癒される天恵の自然景観は、まさに影島の宝物だ。  </ITEMCNTNTS>  <PLACE>絶影海岸散策路</PLACE>  <SUBTITLE>海と一緒に歩く道</SUBTITLE>  <TITLE>絶影海岸散策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humbL</MAIN\_IMG\_THUMB>  <LAT>35.080116</LAT>  </item>  <item>  <MAIN\_TITLE>달맞이길/문탠로드</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1807</LNG>  <MIDDLE\_SIZE\_RM1>多機能トイレ、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車いす利用可能</MIDDLE\_SIZE\_RM1>  <UC\_SEQ>28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海雲台駅1番出口→海雲台区 2、海雲台区 10マウル(村)バス乗り換え  バス：100、139、141、200、39、1003、141（深夜）尾浦ムーンタンロード入口下車  マウル(村)バス：海雲台区2、海雲台区10イルシンハイラヴィラ下車、海雲台区7タルマジ療養病院下車  シティツアーバス：海雲台海水浴場（ブルーライン）→タルマジ（月見）キル 下車  駐車：近くの公営駐車場</TRFC\_INFO>  <ITEMCNTNTS>海雲台三浦道のスタート地点で、カルメッキル第1コースと第2コースをつなぐ道。  月の出が美しい釜山の人気ドライブコース。  日中は青い海を眺めながら歩き、夜は月の光に照らされて歩く道。  パリにモンマルトルの丘があれば、釜山にはタルマジ（月見）キルがある。  タルマジ（月見）キルは、タルマジの丘を登る坂道だが、ちっとも苦しくない。少しずつ登って行くと、海雲台海水浴場や冬柏島、広安大橋まで一望できるからだ。石垣の続く道にはおしゃれなカフェや雰囲気のいいレストラン、隠れたグルメの名店もあるので、ぜひ立ち寄ってみよう。  タルマジ（月見）キルの中間地点には、海月亭がある。古風な雰囲気のこの東屋は、散策の途中でひと休みできる憩いの場だ。タルマジの丘でも最高の月の出スポットで、月の光に照らされる海雲台の海の風景は、韓国八景の一つとされている。正月にここで月の光の下で愛を誓うと、愛が成就するという伝説がある。  海月亭からムーンタンロードにつながる小道を下って行こう。緑豊かな松の森の間から青い海が見える。タルマジの丘の入口にあるムーンタンロードの入口から森の散策を始めてもいいが、海月亭まで来てしまったら、この小道がムーンタンロードに抜ける近道だ。  ムーンタンロードは「月の光に照らされて歩く森の道」という意味で、タルマジの丘の入口から整備された散策路が伸びている。軽装にスニーカーを履く程度の準備でも、ムーンタンロードを散策できる。全長2.2kmの区間を歩くと、再び出発点に戻ってくる。循環散策路を一周するのに1時間ほどかかる。出発点に戻らず東海南部線鉄道の線路に沿って歩けば、青沙浦、松亭海水浴場まで行ける。月光の散策路という名前のように、日没後から夜11時までと午前5時から日の出まで明かりが灯る。  ムーンタンロードのもう一つの魅力は、森の中を歩きながらすぐそばに広がる青い海を満喫できること。歩く途中に展望台に寄って釜山の海を眺めれば、ストレスも一気に吹き飛ぶ。心とからだを癒してくれる波の音を聞きながら、静かに目を閉じてみよう。  松の香りをのせて吹いてくる潮風と、ほのかな月の光を楽しむ散策。  にぎやかな海雲台の都会とは違った、隠れた魅力を感じてみよう。  </ITEMCNTNTS>  <PLACE>タルマジ（月見）キル/ムーンタンロード</PLACE>  <SUBTITLE>散策にうってつけ、都心の森の道</SUBTITLE>  <TITLE>タルマジ（月見）キル/ムーンタンロード</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humbL</MAIN\_IMG\_THUMB>  <LAT>35.156742</LAT>  </item>  <item>  <MAIN\_TITLE>동백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15263</LNG>  <MIDDLE\_SIZE\_RM1>多機能トイレ、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車いす利用可能、ヌリマルAPECハウス内車いすレンタル可能、点字ブロック</MIDDLE\_SIZE\_RM1>  <UC\_SEQ>28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冬柏駅1番出口から徒歩20分  バス：139、307、1003で冬柏島入口下車  釜山シティツアーバス：釜山駅（レッドライン）→海雲台海水浴場下車  駐車：冬柏公園公営駐車場</TRFC\_INFO>  <ITEMCNTNTS>海雲台海水浴場の広々とした海を眺めながら歩いて行くと、砂浜の端に佇む冬柏島に出る。もともと島だったここは、長年にわたる堆積作用で今は陸地とつながっているが、釜山市民の間では今も「冬柏島」と呼ばれている。  冬柏島の自然をそのまま公園にした冬柏公園は、豊かな海松の林が美しい。冬柏島の周囲に整備された海岸散策路の全長は950mほどと長くはないが、静かに散策を楽しみながら一日を締めくくるには絶好の場所だろう。  最初の展望デッキを過ぎて少し歩くと、岩の上に寂しそうな銅像が立っている。『三国遺事』に記録された黄玉姫の説話をもとに制作された人魚の像だ。海の向こうの遠い国に嫁いだ黄玉公主は、故国のことが忘れられず、満月の夜が来るたびに海を見ながら悲しい気持ちを慰めたという。  この銅像は1974年に設置されたが、1987年の台風で消失し、現在、上の部分だけが釜山博物館に保管されている。今の人魚像は、1989年に新たに制作されたものだ。  海に沿って歩いて行くと、つり橋が現れる。一部の区間で下を見下ろせるようになっているが、長さが比較的短く高さもそれほど高くないため、高所恐怖症がある人や子どもでも安心して渡ることができる。  海岸散策路は、広い展望台のところで白い灯台につながっている。展望台から海を眺めると、ヌリマルAPECハウスと広安大橋が同時に一望できる。少し左に視線を移すと五六島まで眺められるので、釜山の海の有名な風景が一望できる絶好の場所だ。  ヌリマルAPECハウスは、2005年に釜山APEC首脳会議が開かれた場所だ。本会議場に丸く並べられたアジア・太平洋各国の首脳が座った椅子をはじめ、会議の際に提供された食事や記念品などが観られる。海雲台の絶景と調和する近代的な外観は、世界で最もユニークな国際会議場とされている。  海と森、ありのままの自然が感じられる冬柏島。海岸線を歩くロマンはもちろん、釜山を代表する象徴的な建物が一望できる展望も楽しめる。冬柏海岸散策路は、今では海雲台旅行の必須コースとなっている。  </ITEMCNTNTS>  <PLACE>冬柏海岸散策路</PLACE>  <SUBTITLE>釜山を感じられる冬柏海岸散策路</SUBTITLE>  <TITLE>冬柏海岸散策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humbL</MAIN\_IMG\_THUMB>  <LAT>35.151962</LAT>  </item>  <item>  <MAIN\_TITLE>피란수도길</MAIN\_TITLE>  <CATE2\_NM>都心の道</CATE2\_NM>  <LNG>129.01738</LNG>  <MIDDLE\_SIZE\_RM1/>  <UC\_SEQ>30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1950年6月25日未明、北朝鮮の奇襲攻撃により始まった戦争。十分に戦争に備えていなかった韓国は、開戦3日後に首都ソウルが陥落した。南に後退した韓国政府は、1950年8月18日、釜山を避難首都に定めた。それから約70年が過ぎたものの、釜山には当時の痕跡があちこちに残る。歴史と哀歓が息づくその痕跡をたどってみ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避乱首都キル&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碑石文化村 - 雲が休んで行く展望台 - 崔敏植(チェ・ミンシク)ギャラリー - 汽車の家芸術体験場 - 臨時首都記念館 - 石堂博物館&lt;/p&gt;  釜山市西区峨嵋洞には、避難民の暮らしを垣間見ることのできる峨嵋洞碑石文化村がある。戦争を避けて釜山に来た避難民が定着した山の麓。そこには、日帝強占期に日本人が造った共同墓地があった。家を建てる材料さえ足りなかった時代。人々は墓地の碑石を使って、墓の上にも家を建てるしかなかった。今でも碑石文化村の路地には、その痕跡がそのまま残る。  碑石文化村から3分ほど歩くと、「雲が休んで行く展望台」に出る。ここからは、峨嵋洞一帯の山腹道路が一望できる。険しい斜面に家を建てて暮らすしかなかった避難民たち。人一人がやっと通れるほどの狭い路地を挟んでびっしり立ち並ぶ家々を見ていると、当時の避難民たちの厳しい暮らしが想像できる。  展望台のすぐ下には、避難民の暮らしの痕跡が残る崔敏植(チェ・ミンシク)ギャラリーがある。崔敏植は韓国の第1世代のドキュメンタリー写真作家で、主に釜山で活動しながら庶民のリアルな生活をカメラに収めたことで有名だ。ギャラリーには、物売りのチャガルチのおばさん、すすまみれの笑顔の子どもなど、戦争直後の釜山の人々を捉えた写真が展示されている。古い写真を見ていると、厳しい暮らしの中でも希望を抱いて日々を耐え抜いた当時の避難民の姿が浮かび上がる。  崔敏植ギャラリーの隣にある「汽車の家芸術体験場」もオススメの観光スポット。「汽車の家」は、一つの部屋をまるで汽車の車両のように仕切ってたくさんの人々が住んでいたことから名付けられた。狭い空間でさえ仕切って暮らすしかなかった避難民の厳しい暮らしがそのまま伝わってくる。今は住民たちの集いの場で、観光客のための体験スペースや休憩スペースとしても使われている。  汽車の家芸術体験場から10分ほど尾根を歩くと、臨時首都記念館が現れる。臨時首都記念館は、釜山が臨時首都だった約1000日間、大統領官邸として使われた場所だ。李承晩元大統領の執務空間があり、当時の避難民の暮らしを間接的に体験できる模型展示館もあるので、子ども連れの旅行客にオススメだ。  臨時首都記念館から東亜大学校に向かって歩くと、石堂博物館が見えてくる。かつて臨時首都の政府庁舎として使われた建物で、今は釜山の歴史について展示する博物館として使われている。赤レンガに瓦屋根をのせた建物は釜山を代表する近代建築で、日帝強占期から韓国戦争に至る韓国の近現代の政治・社会の面影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  青い海や超高層ビルの街を楽しむ旅行もいいが、韓国の近現代史の中の釜山の歴史を知りたいなら、避難首都ギルを歩きながら、有意義な時間を過ごしてみるのもいいだろう。  </ITEMCNTNTS>  <PLACE>避乱首都キル</PLACE>  <SUBTITLE/>  <TITLE>避難民の哀歓が息づく臨時首都釜山を行く</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humbL</MAIN\_IMG\_THUMB>  <LAT>35.103672</LAT>  </item>  <item>  <MAIN\_TITLE>원도심투어</MAIN\_TITLE>  <CATE2\_NM>都心の道</CATE2\_NM>  <LNG>129.03847</LNG>  <MIDDLE\_SIZE\_RM1/>  <UC\_SEQ>30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旅には、様々なテーマがある。  グルメを求めて旅するグルメ旅、様々な体験をする体験旅行などなど。そのすべてを満喫できる旅が、釜山旧都心ストーリーツアーだ。グルメ、観光スポット、釜山の物語がすべて詰まっている。ツアーは、中区、西区、東区、影島区一帯を巡るコースとなっている。昔から地域で暮らしてきたお年寄りから話を聞けるのもポイントだ。  旧都心の懐かしい思い出の記憶をよみがえらせ、子どもたちに新しい体験を届ける「物語のある旅」を満喫してみよう。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草梁イバグキル&lt;/p&gt;  釜山市東区にあるイバグキルには、近代期の釜山の面影が残る。かつては開港の中心地だったエリアで、今はカフェに生まれ変わった旧百済病院と草梁教会など、近代建築様式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金敏夫(キム・ミンブ)展望台や柳致環(ユ・チファン)郵便ポストからは、開けた釜山港の風景が一望できる。山腹道路の上と下をつなぐ168階段には情緒溢れる街並みが残っており、急な階段を昇り降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住民のために設置されているモノレールは、訪れる人々にイバグキルならではのユニークな体験をプレゼントしてくれ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甘川文化村/避難首都キル&lt;/p&gt;  釜山市西区は、韓国戦争が残した痕跡の中で、特に避難民の暮らしが肌で感じられる場所だ。曲がりくねった路地を歩きながら多彩な壁画が観られる場所として有名な甘川文化村は、韓国戦争の際、避難民たちが山の斜面に家を建てて暮らした集落にルーツを持つ。今では地域住民と芸術家たちの努力によって、芸術の感性あふれる通りに生まれ変わった。墓地の上に家を建てて暮らすしかなかった碑石文化村、チャガルチの労働者たちの厳しい暮らしをレンズに収めた写真作家・崔敏植（チェ・ミンシク)のギャラリー、そして大統領官邸として使われた臨時首都記念館。今では、どれも臨時首都釜山の貴重な遺産となってい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龍頭山キル/国際市場キル&lt;/p&gt;  中区は、釜山の過去と現在が共存するエリア。開港期に建てられた草梁倭館や日本の影響を受けたデパート、近代期の釜山を肌で感じられる釜山近代歴史館や大覚寺など、中区には近代釜山の歴史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もしお腹がすいたら、国際市場に行ってみよう。かつてたくさんの避難民たちの仕事場だった市場のあちこちには、おいしいグルメがいっぱいだ。そんな食べ物の一つ一つにも、避難民たちの悲しい物語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橋キル/ヒンヨウルマウルキル&lt;/p&gt;  今度は、釜山のシンボルの一つ、影島橋に行ってみよう。中区と影島区をつなぐ影島橋は、韓国初の可動橋で、避難民の再会の場でもあった。かつて船を修理する工場が集まり、「カンカン」という音が響いていたことから「カンカンイキル」とも呼ばれていた。  影島の海岸絶壁に形成されているヒンヨウルマウルキルは有名なロケ地で、一年中観光客が訪れる観光スポットだ。村の下にある海岸散策路を歩きながら、影島の海の絶景を楽しもう。  </ITEMCNTNTS>  <PLACE>釜山旧都心ストーリーツアー</PLACE>  <SUBTITLE>物語のある充実した旅</SUBTITLE>  <TITLE>釜山旧都心ストーリーツアー</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17</LAT>  </item>  <item>  <MAIN\_TITLE>이기대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12091</LNG>  <MIDDLE\_SIZE\_RM1>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多機能トイレ</MIDDLE\_SIZE\_RM1>  <UC\_SEQ>32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慶星大・釜慶大駅 → 20、22、24、27、39、131番のバスに乗り換え  マウルバス：「南区2」、「南区8」番  駐車：二妓台公営駐車場(有料)</TRFC\_INFO>  <ITEMCNTNTS>二妓台は、南区龍湖洞長山峰の山裾の東に広がる  海岸にある美しい岩の別名だ。  「二妓台」という地名は、水営の二人の妓生がここに眠っていることから付けられた。  壬辰倭乱の時、倭軍が水営城の陥落を祝って宴会を開いた際、二人の妓生が酒に酔った倭将と共にここから身を投げて、壮烈な死を迎えたという話が伝わる。  二妓台は軍事作戦地域に指定され立ち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1993年から市民に開放された。今は、都心では珍しい鬱蒼とした森が形成されていて様々な野生動物が生息する自然区域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海もきれいで、釜山でも指折りの釣り場でもある。  二妓台には、海岸一帯の美しい風景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散策路が整備されていて、昔から市民に愛されてきた。循環道路と五六島につながる散策路を歩きながら、釜山のランドマークを様々な角度から楽しむことができる。  二妓台海岸散策路は南区のトレッキングコースの一つで、トンセンマル～オウルマダン～ノンバウィ～五六島船着場を結び、全長は4.7kmに及ぶ(所要時間：約2時間30分)。本格的なトレッキングは二妓台ザ・ビューの下から始まる。海岸の絶壁に沿って壮大な風景が広がっており、海の向こうの広安大橋や釜山ヨットハーバー、マリンシティ、冬柏島、ヌリマルAPECハウス、海雲台海水浴場など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  二妓台海岸散策路は、釜山を代表するカルメッ道とヘパラン道(五六島～固城)の一部となっているため、途中には様々な標識が立っている。  トンセンマルを過ぎて吊橋を渡るとオウルマダンにたどり着く。こちらは代表的な日の出スポットで、映画『TSUNAMI -ツナミ-(原題：海雲台)』のロケ地としても使われ、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名所だ。  海岸に沿って歩いていると、海岸の絶壁と波食台の珍しい風景が目に飛び込んでくる。ここは釜山国家地質公園に指定されていて、海蝕洞、海食甌穴など、地質遺産が並んでいる。不思議な形をした岩は、形によってそれぞれ名前が付けられている。一つひとつ名前を当ててみるのも面白いはず。  山道を通って丘を越えると、五六島ヘマジ(日の出)公園に着く。日の出と日の入りのどちらも眺めることができる名所で、ガラス張りのスカイウォークが設置されていてスリル満点だ。  二妓台海岸散策路では、立ち止まると海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吹いてくる風を感じながら、いつの間にか心配事は消えて、青い海の美しい景色だけが心に残る。歩きたくなる道とは、こういうものだろう。  </ITEMCNTNTS>  <PLACE>二妓台の海岸散策路</PLACE>  <SUBTITLE>美しい絶景と悲しい歴史</SUBTITLE>  <TITLE>二妓台海岸散策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humbL</MAIN\_IMG\_THUMB>  <LAT>35.130497</LAT>  </item>  <item>  <MAIN\_TITLE>삼포해안길</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17104</LNG>  <MIDDLE\_SIZE\_RM1/>  <UC\_SEQ>34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目まぐるしく過ぎていく日々の中で、「ゆっくり歩く」のはとても意味のあること。忙しい日常から離れてちょっとした余裕を楽しみ、重荷を下ろしてゆっくり歩く。この道では、そんな時間が過ごせる。海雲台から松亭へと続く三浦海岸キルを紹介し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三浦海岸キル&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尾浦 - 尾浦チョルキル/ムーンタンロード - 青沙浦 - タリットル展望台 - 尾浦チョルキル - 九徳浦&lt;/p&gt;  海雲台海水浴場の端に、三浦海岸キルの最初の入り江「尾浦」がある。高層ビルの間に佇む小さな「尾浦」は、海雲台臥牛山の「しっぽ」に当たる。通り沿いに刺身屋が立ち並び、海岸の防波堤では大物がかかるのを待つ釣り人たちが、静かに海を眺めている。尾浦には、五六島まで運行する遊覧船の船着場がある。もっと近くで海を感じたいなら、五六島まで行くこともできる。  尾浦の新名所といえば、何といっても「尾浦チョルキル」だ。次の入り江の青沙浦まで続くこの鉄道は、かつて東海南部線の線路だった。2013年の廃線後に散策路として生まれ変わり、今では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  線路のすぐそばに海が広がり、観光客にも釜山市民にも魅力的なスポットだ。線路沿いを歩いていると、消え去るものをいとおしむ気持ちになる。さらに線路を辿って歩くと、小さなトンネルにたどり着く。フォトスポットとして人気のスポットだ。  線路を辿って青沙浦を目指すルートの他に、尾浦からムーンタンロードを通って青沙浦を目指すルートもある。タルマジ(月見)キルと海岸の間の丘にある森の中の散策路「ムーンタンロード」は、「月の光に照らされる道」という意味の名のとおり、夜になると美しい照明が灯って美しい景観を誇る。生い茂った海松の間から時々顔を覗かせていた海は、展望台のあたりからぱっと開ける。  尾浦チョルキルとムーンタンロードの先には「青沙浦」がある。海水がきれいなことで知られる青沙浦は、魚がたくさん釣れるため釣り好きの聖地とされている。赤と白の双子灯台が静かに立つ小さな入り江。遥かに望む水平線と波の音、風に乗って漂う海の香り。青沙浦では、五感で海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最近では、この小さな入り江に「タリットル展望台」が完成し、海の上を歩いているようなスリル満点の体験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線路はタリットル展望台から九徳浦まで続く。三浦海岸キルの最後の入り江「九徳浦」に至る道のあちこちには、名もない野花や雑草が揺れ、疲れた旅人を励ましてくれる。  これまでの入り江と比べて素朴な印象の九徳浦は、海の余裕を満喫するには申し分のない場所。線路の果てで出会う九徳浦の海では、悩みも心配事も白い泡と一緒に消えて行く。海岸に沿って伸びる細長い道路を歩くと、サーファーの聖地である松亭海水浴場にたどり着く。  三浦海岸キルは、釜山を代表する入り江の「尾浦」、「青沙浦」、「九徳浦」を結ぶことから名付けられた。慌ただしい日常から離れてゆっくり歩きながら、開放感ある海の風景に癒されよう。  \*\*\* 「尾浦チョルキル(廃線路)」は、工事のため2020年6月まで閉鎖となります。  </ITEMCNTNTS>  <PLACE>三浦海岸キル</PLACE>  <SUBTITLE>釜山三大浦のひとつ</SUBTITLE>  <TITLE>三浦海岸キル</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6001</LAT>  </item>  <item>  <MAIN\_TITLE>기장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道</CATE2\_NM>  <LNG>129.2112</LNG>  <MIDDLE\_SIZE\_RM1/>  <UC\_SEQ>352</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釜山の定番観光スポットを巡り終わったら、今度は機張郡に行ってみよう。  新しい釜山の海の魅力を感じられる場所、機張の海岸散策路を紹介しよう。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おすすめコース&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公須村-海東龍宮寺-国立水産科学館-アナンティコーブ-五郎台公園-蓮花里-大辺港&lt;/p&gt;  小さく美しい入り江にある「公須村」は、馬のひづめの形をした閑静な海岸の村だ。こぢんまりした漁村だが、有名な機張ワカメの産地なので、春になると採れたてのワカメを干す珍しい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る。防波堤の赤い灯台と向き合う岩石と、その後ろに広がる松の丘が絶景を演出する。村につながる海辺の岩は、釣り人たちと海鳥の天国だ。  海松と竹林が続く小道を抜けて海東龍宮寺に足を運ぶ。海東龍宮寺は、海の絶景を楽しむのに打ってつけの場所。正面にエメラルド色の海が広がるお寺なんて、そうそうないからだ。願い事が必ず一つ叶うという伝説もあるので、足を運ぶ価値はある。厳かな気持ちで願い事をしたら、水産科学館につながる散策路に向かおう。  海に最も近いところにある水産科学館では、海洋と水産について学び、未来の海洋技術に関する情報を得ることができる。何よりも、水産科学館の展望台から眺める景色が美しく、機張の海岸散策路を楽しむ人々に、素敵な休息のひとときをプレゼントしてくれる。  機張の新名所、ヒルトン釜山アナンティコーブにも足を運ぼう。機張の海が一望できる場所にあり、ホテルというよりは一つの街である。「アナンティコーブタウン」という名前が付いているのはそのためかもしれない。宿泊だけでなく、タウン内で文化やレジャー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お腹が空いたときに訪れるのにぴったりだ。  機張の漁村はみな、小さくてこじんまりしている。銅岩浦口を過ぎて五郎台公園に着くと、そびえ立つ奇岩怪石のてっぺんに漁の安全を祈る祭壇「龍王壇」があり、独特な風景を生み出している。でこぼこの岩道に気を付けながら龍王壇まで上ると、海辺の岩にぶつかる波の音がすぐそばから聞こえてくる。  海岸の道を抜けると、内陸につながる。遠くに見える「マジンガーZ」や「テコンV」の灯台が面白い。灯台を過ぎたら、蓮花里近くまで来たことになる。機張蓮花里は、新鮮な海産物の産地として知られる。海女さんが獲る新鮮な魚介類と、あつあつのアワビ粥は、いつの間にか蓮花里の定番メニューとなった。  全国でも有名な機張カタクチイワシと機張ワカメは、この大辺港で獲れるもの。春になるとカタクチイワシ祭りが開かれ、カタクチイワシを獲る漁師たち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漁を終えた船が停泊する静かな港をゆっくり歩く。通りの両側に立ち並ぶテントでは、カタクチイワシやカタクチイワシの塩辛、ワカメなどを販売している。せっかく遠くまできたのだから、買ってみるのもいいかもしれない。カタクチイワシにするか、ワカメにするかだけ決めればいい。  釜山の都心をスピーディーに巡る旅もいいが、海岸沿いを歩きながらゆっくりと「スローな釜山」を楽しむのもいいかもしれない。今度の旅は、ぜひ機張海岸散策路にチャレンジしてみては。  </ITEMCNTNTS>  <PLACE>機張海岸散策路</PLACE>  <SUBTITLE>「スローな釜山」に出会う 人気スポット巡り</SUBTITLE>  <TITLE>機張海岸散策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humbL</MAIN\_IMG\_THUMB>  <LAT>35.184452</LAT>  </item>  <item>  <MAIN\_TITLE>화지산 치유숲길</MAIN\_TITLE>  <CATE2\_NM>森の道</CATE2\_NM>  <LNG>129.06126</LNG>  <MIDDLE\_SIZE\_RM1/>  <UC\_SEQ>356</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子供大公園」を出発し、「和池山治癒の森」を経て「釜山市民公園」に至る、自然と触れ合いながら心身を休めるトレッキングに出かけよう。  和池山とつながる白楊山の裾にある「子供大公園」は、聖知谷貯水池を中心に、さわやかな自然林を満喫できる場所。様々な種類の樹木が生い茂る森は、ここが釜山の都心とは思えない。江原道の深い山の中にいるように感じながら、本格的に探訪を始めよう。  子供大公園から和池山へ向かう道は、穏やかな道が続く。緑豊かな松林の間に、軽装の登山客がちらほら見える。和池山は本格的な登山を楽しむ山というよりは裏山に近く、誰でも気軽に山歩きができ、森林浴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緑に染まった森の道を歩きながら新鮮な空気を胸一杯に吸い込むと、もう癒しの効果が出たのか、足取りも軽やかになる。  和池山の頂上を目指す道に入ると、曲がった松の群落が壮観をなしている。数え切れないほどの松の木は、一体いつからここを見守っているのだろう。風に乗って漂う松の香りを味わいながら、ありがたみを感じる。あちこちに落ちている松ぼっくりを踏まないように歩いていたら、頂上であることを示す石碑が目に留まる。  頂上に着いたら、今度は降りる番だ。釜山市民公園の方向を示す道しるべを見てうれしくなる。少し歩くと、フィトンチッドの香りが漂うヒノキの森にたどり着く。すっと伸びた木の間に爽やかな風が吹き、しばらくひと休みしたくなる。市民公園に近づいてくると、天然記念物のサルスベリが見えてくる。暑い夏に花を咲かせ、100日間華麗に咲き続けるサルスベリ。花が咲く頃にまた来ることを約束し、先に進む。  ついに、和池山から釜山市民公園につながる橋にたどり着く。「エコブリッジ」という別名の通り、日中には人が渡り、夜には動物が行き来する通り道で、まさに人と動物をつなぐ橋だ。  エコブリッジを渡った先の釜山市民公園は、日帝強占期と米軍駐屯地時代を経て、100年ぶりに市民の憩いの場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公園だ。公園中央の広い芝生広場を中心に、自然、文化、遊びが調和したテーマ型公園で、ヒーリング・トレッキングのクライマックスを飾る。公園を横切って流れる田浦川を散歩しながら、リラックスしてみよう。メタセコイア並木道、プラタナス並木道、椿迷路庭園が目を引く。大型噴水から噴き上がる水が疲れも吹き飛ばし、芝生の上を走りまわる子どもたちの笑い声が耳元をかすめる。  100年間、この楽しい空間は、市民の元から遠く離れていた。しかし、悲しい歴史があるとしても、その歴史を忘れずに、新たな未来を築いていくことが大切だろう。  木陰の下で一息ついていると、安らかな気持ちになれる。  </ITEMCNTNTS>  <PLACE>和池山治癒の森の道</PLACE>  <SUBTITLE>歩く癒しの旅</SUBTITLE>  <TITLE>和池山治癒の森の道</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humbL</MAIN\_IMG\_THUMB>  <LAT>35.183876</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4</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4) [부산도보여행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4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도보여행 중문 간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도보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간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Zhs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25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58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콘텐츠명 |
| CATE2\_NM | 구분 | 100 | 0 | 市中心路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1163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3874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草粱故事路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草粱故事路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故事之“花”盛放 | 부제목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都市铁路 从1号线釜山站7号出口步行2分钟，从草梁站1号出口步行8分钟  巴士 乘坐26、27、40、41、59、81、87、103、1003、1004路巴士，在釜山站下车，步行2分钟  停车 附近公营停车场 | 교통정보 |
| MIDDLE\_SIZE\_RM1 | 기타정보 | 500 | 0 |  | 기타정보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以釜山港为中心，在附近每座山的半山腰都建造着密密麻麻的房屋。  这是离开心爱的故乡，逃到釜山避难的人们爬到山上建立的村庄。只要有活计，就到码头、车站和国际市场等，一天上下几十趟的168阶梯。  由完全不懂庆尚道方言的人们所讲述的故事路，一起到草粱故事路看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粱故事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原百济医院 - 南线仓库地 - 草粱教堂 - 168阶梯 - 金敏夫观景台 - 故事工作室 - 张起吕纪念分享中心 - 柳致环邮筒观景台&lt;/p&gt;  从釜山站出来后，属于釜山的特别故事也将开启。经釜山历史路，在对面狭窄的胡同中遇见的原百济医院和南线仓库地基就是草粱故事路的出发点。雄伟的百济医院和只剩下墙壁的南线仓库地基的红砖上依然残留着岁月的痕迹。仿佛能在脑海中勾勒出这两处地方在20世纪20年代最辉煌灿烂的盛况。  接着前往外国传教士最早建立的草粱教堂。据说这里是由开展抗日运动、反对参拜神社的人们聚集在一起共同建造的教堂。在沿着草梁小学围墙建起的狭窄小巷里，布满了岁月的痕迹。每张照片中都映射出了难民们的喜怒哀乐。  没有道路的板子村当然也不可能有自来水。想必在当时，如果想用水，就需要跑下168阶梯，在提桶中装满水后再爬上似乎没有尽头的阶梯。只剩下地基的井和阶梯旁的单轨列车让人感受到了岁月无情的流逝。  在纪念釜山天才诗人金敏夫的金敏夫观景台暂时休息之后，再前往故事工作室。故事工作室是一个展示在草粱山腹道路间发生的琐碎故事的空间。在仿佛能与天空相接的山腹道路村，每家每户都有许多的故事。这里是平静地传达苦涩人生痕迹的地方。  接下来要认识的是一辈子没为自己准备过一间房子，免费为贫困难民看病的外科医生张起吕博士。张起吕博士施展的并非医术，而是仁术，在纪念其业绩的张起吕纪念分享中心，可以学到他那自愿贫穷的崇高精神。之后在市内巴士来往的山腹道路尽头的柳致环邮筒观景台眺望釜山港，结束草粱故事路的旅程。  每一条能感受到岁月的胡同都有自己的故事。跟着故事走就会明白，原来当地人们所讲的“Ibagu”就是故事，“Kkakkomak”就是非常陡的陡坡。  就像难民们的所作所为一样，草粱故事路就是我们一直走下去的人生旅程。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Zhs?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초량이바구길</MAIN\_TITLE>  <CATE2\_NM>市中心路</CATE2\_NM>  <LNG>129.03874</LNG>  <MIDDLE\_SIZE\_RM1/>  <UC\_SEQ>58</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从1号线釜山站7号出口步行2分钟，从草梁站1号出口步行8分钟  巴士 乘坐26、27、40、41、59、81、87、103、1003、1004路巴士，在釜山站下车，步行2分钟  停车 附近公营停车场  </TRFC\_INFO>  <ITEMCNTNTS>以釜山港为中心，在附近每座山的半山腰都建造着密密麻麻的房屋。  这是离开心爱的故乡，逃到釜山避难的人们爬到山上建立的村庄。只要有活计，就到码头、车站和国际市场等，一天上下几十趟的168阶梯。  由完全不懂庆尚道方言的人们所讲述的故事路，一起到草粱故事路看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粱故事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原百济医院 - 南线仓库地 - 草粱教堂 - 168阶梯 - 金敏夫观景台 - 故事工作室 - 张起吕纪念分享中心 - 柳致环邮筒观景台&lt;/p&gt;  从釜山站出来后，属于釜山的特别故事也将开启。经釜山历史路，在对面狭窄的胡同中遇见的原百济医院和南线仓库地基就是草粱故事路的出发点。雄伟的百济医院和只剩下墙壁的南线仓库地基的红砖上依然残留着岁月的痕迹。仿佛能在脑海中勾勒出这两处地方在20世纪20年代最辉煌灿烂的盛况。  接着前往外国传教士最早建立的草粱教堂。据说这里是由开展抗日运动、反对参拜神社的人们聚集在一起共同建造的教堂。在沿着草梁小学围墙建起的狭窄小巷里，布满了岁月的痕迹。每张照片中都映射出了难民们的喜怒哀乐。  没有道路的板子村当然也不可能有自来水。想必在当时，如果想用水，就需要跑下168阶梯，在提桶中装满水后再爬上似乎没有尽头的阶梯。只剩下地基的井和阶梯旁的单轨列车让人感受到了岁月无情的流逝。  在纪念釜山天才诗人金敏夫的金敏夫观景台暂时休息之后，再前往故事工作室。故事工作室是一个展示在草粱山腹道路间发生的琐碎故事的空间。在仿佛能与天空相接的山腹道路村，每家每户都有许多的故事。这里是平静地传达苦涩人生痕迹的地方。  接下来要认识的是一辈子没为自己准备过一间房子，免费为贫困难民看病的外科医生张起吕博士。张起吕博士施展的并非医术，而是仁术，在纪念其业绩的张起吕纪念分享中心，可以学到他那自愿贫穷的崇高精神。之后在市内巴士来往的山腹道路尽头的柳致环邮筒观景台眺望釜山港，结束草粱故事路的旅程。  每一条能感受到岁月的胡同都有自己的故事。跟着故事走就会明白，原来当地人们所讲的“Ibagu”就是故事，“Kkakkomak”就是非常陡的陡坡。  就像难民们的所作所为一样，草粱故事路就是我们一直走下去的人生旅程。  </ITEMCNTNTS>  <PLACE>草粱故事路</PLACE>  <SUBTITLE>故事之“花”盛放</SUBTITLE>  <TITLE>草粱故事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35</LAT>  </item>  <item>  <MAIN\_TITLE>절영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04251</LNG>  <MIDDLE\_SIZE\_RM1>有轮椅通行区间(绝影海岸散步路入口~白川海岸隧道/绝影海浪路)</MIDDLE\_SIZE\_RM1>  <UC\_SEQ>25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巴士 508、6、7、70、71、82、85、9路，影岛区1、5路，釜山保健高中站下车</TRFC\_INFO>  <ITEMCNTNTS>提起釜山就会想起大海！你说你去过很多海水浴场？如果想要感受釜山大海独特的魅力，就去绝影海岸散步路吧!  位于釜山影岛瀛仙洞，太宗台入口处的绝影海岸散步路是从南港洞的管理事务所出发，经过中里港、甘地海边路,与太宗台连接的约3千米长的海岸路  过去因这里地形陡峭、险峻，所以成为了军事保护区。直至2001年才开发为散步路，现已成为韩国的旅游胜地。沿着散步路墙面建造的瓷砖壁画和波浪纹地板与眼前的大海相映成趣，给人带来清凉之感。  走在绝影海岸散步路上，偶尔会看到海女在下海捡海物，她们就是南港渔村的海女。经过白川海岸隧道，即可在朴素的海女村观赏到直接采集的自然海物。假如在行走过程中感到有点饿，可以到海女村，品尝新鲜的海产品，感受大海的原汁原味，也相当不错。  作为2014年国土海洋部选定的名副其实的韩国五大海岸散步路之一，处处都有很多看点。登上五颜六色的彩虹色钢琴台阶，就能到达白川观景台。而登上观景台，就可以看到南港锚泊地如梦似幻的海景。如果不走彩虹台阶，就直接去白川海岸隧道吧。全长70米的隧道内，设有五彩缤纷的灯光和华丽的拍照区，深受游客们的喜爱。  走出白川海岸隧道，会看到完全不同的海岸路。影岛的西岸，将很久之前的景观和自然环境保存得非常完好。看着陡峭的奇岩绝壁和激荡的波涛，会不觉令人心旷神怡。连接在岩石之间的索桥为长长的散步路带来了别样的乐趣，可谓是“治愈路”上的亮点。  沿着林道向前到达绝影海浪路。在绝影海浪路有许多绝美的海景，可以看到一望无际的大海。其中，天空观景台的天空步道会让人感觉仿佛在海面上行走，带来强烈的刺激体验。附近的75广场是在1975年建成的，可作为供游客休息的场所，天气晴朗时，还可以看到对岸的对马岛，是文化旅游热点。一边是水平线，一边是美丽展现的白川村一带，在海风的吹拂下，不妨就在这里，将一切辛苦和悲伤的事都全部放飞。  跟随滚滚波涛，可以同时感受悠闲和自由的绝影海岸散步路。只是行走在其中，就能得到治愈的天然自然景观，是绝不可错过的影岛之宝。  </ITEMCNTNTS>  <PLACE>绝影海岸散步路</PLACE>  <SUBTITLE>以大海为友的路线</SUBTITLE>  <TITLE>绝影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humbL</MAIN\_IMG\_THUMB>  <LAT>35.080116</LAT>  </item>  <item>  <MAIN\_TITLE>달맞이길/문탠로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807</LNG>  <MIDDLE\_SIZE\_RM1>残疾人洗手间、残疾人停车区、可乘坐轮椅</MIDDLE\_SIZE\_RM1>  <UC\_SEQ>28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在2号线海云台站1号出口→换乘海云台区2、10路居民区小巴士  巴士 乘坐100、139、141、200、39、1003、141（夜间）路巴士，在尾浦月光路入口站下车  居民区小巴士 乘坐海云台区2、10路居民区小巴士，在日新Haila独立住宅楼站下车。乘坐海云台区7路车，在迎月疗养医院站下车。  市区旅游巴士 海云台海水浴场（蓝线）→ 在迎月路站下车  停车 附近的公共停车场</TRFC\_INFO>  <ITEMCNTNTS>是海云台三浦街的起点，也是连接海鸥路路线1和路线2的道路。  月出动人的釜山人气兜风路线。  白天望着蔚蓝的大海漫步，晚上迎着月光漫步。  如果说巴黎有蒙马特山丘，那么釜山就有迎月路。  虽然迎月路需要登上迎月坡，但一点都不会觉得费力。因为随着视野变得开阔，可将海云台的海水浴场、冬柏岛，以及远处的广安大桥尽收眼底。沿着石墙路的街道上，坐落着各种漂亮的咖啡馆、高雅的餐厅，以及隐藏的美食店，让游客心动不已。  在迎月路的中间位置，可以看到海月亭。古色古香的亭子是让因行走而感到疲乏的腿部短暂休息的好去处，同时也是迎月坡最佳观赏月出的地方。月光低垂的海云台前海形成的壮丽景观是大韩八景之一。传说，在正月光的照耀下，在这里互许诺言的男女就能够实现美好爱情。  沿着连接海月亭到月光路的小道一直往下，就能在郁郁葱葱的松林道间看到碧蓝的大海。可以将从位于迎月坡入口处的月光路作为漫步松林道的起点，但如果已经走到了海月亭，那么这条小道就是能够与月光路汇合的最快方法。  月光路寓意为迎着月光行走的林间小路，从迎月坡开始延伸，非常适合散步。只需身着便装、脚踩运动鞋，就能轻松走完月光路。经过长2.2公里的区间，会再次回到出发点。走完循环散步路最多也就需要一个小时左右。不回出发点，沿着东海南部线的铁路向前，就能到达青沙浦、松亭海水浴场。正如“月光散步路”之名，这里从日落后到晚上11点，从凌晨5点到日出前，都会灯火通明。  月光路的另一个魅力在于林间散步路旁的那一片碧蓝的大海。在途中可以前往观景台望着釜山前海一扫积累的所有压力。让我们静静闭上眼睛，听着波涛声，清空脑海里的杂念。  迎着伴随松香吹来的海风及淡淡的月光散步。  如果说之前记住的是熙熙攘攘的海云台市中心，那么接下来就领略一下海云台所隐藏的其他魅力吧。  </ITEMCNTNTS>  <PLACE>迎月路/月光路</PLACE>  <SUBTITLE>适合步行的市中心内林道</SUBTITLE>  <TITLE>迎月路&amp;月光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humbL</MAIN\_IMG\_THUMB>  <LAT>35.156742</LAT>  </item>  <item>  <MAIN\_TITLE>동백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5263</LNG>  <MIDDLE\_SIZE\_RM1>残疾人洗手间、残疾人停车区、轮椅可通行、APEC世峰楼内有轮椅出租、 盲道砖</MIDDLE\_SIZE\_RM1>  <UC\_SEQ>28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从2号线冬柏站1号出口步行20分钟  巴士 乘坐139、307、1003路巴士，在冬柏岛入口站下车  釜山市区旅游巴士 釜山站（红线）→在海云台海水浴场站下车  停车 冬柏公园公共停车场</TRFC\_INFO>  <ITEMCNTNTS>漫步在海云台海水浴场，望着广阔的大海，沉浸在思绪中，不知不觉就来到了位于白沙滩尽头的冬柏岛。这里本是一座岛屿，但在漫长的岁月中，因沉积导致与陆地相连，不过釜山人仍然将这里称之为冬柏岛。  冬柏公园是将冬柏岛的自然风光原封不动地呈现给游客的公园，郁郁葱葱的海松非常壮观。沿着冬柏岛周边铺设的海岸散步路约长950米，虽不算长，但可以在这里静静散步，整理一天的日程。  经过第一个眺望台，再往前走一段，就能看到岩石上的那座孤独的铜像。这是以《三国遗事》上记载的黄玉公主的传说为基础制作的人鱼像。据说，远嫁到大洋彼岸的黄玉公主在思念祖国时，就会看着升起满月的海面，平复悲痛的内心。  该铜像于1974年首次建成，但因1987年的台风而遗失，目前上身部分保存在釜山博物馆。现在的青铜人鱼像是1989年重新制作而成的。  沿着绵延的海路一直向前，就能看到一座索桥。虽然一部分路段可以看到下面，但因为桥身较短，且并不是很高，所以即便有恐高症或是怕高的儿童也可以顺利通过。  海岸散步路经宽敞的观景台一直延伸至白色灯塔。在观景台上眺望大海，可以同时看到APEC世峰楼和广安大桥。如果再往左一点，就可以看到五六岛，所以这是一个能够一览釜山大海的好地方。  APEC世峰楼是2005年举行釜山APEC峰会的场所。在这里可以看到围绕会议现场布置的亚‧太首脑们的座椅，以及当时提供的饮食和纪念品等。与海云台美景完美结合的现代外观，可以说是世界上最具特色的国际会议厅  在冬柏岛可以感受到大海、森林以及原汁原味的大自然。沿着海岸线漫步的浪漫加上代表釜山的标志性建筑，冬柏海岸散步路已成为海云台旅游的必经路线。  </ITEMCNTNTS>  <PLACE>冬柏海岸散步路</PLACE>  <SUBTITLE>怀抱釜山的冬柏海岸散步路</SUBTITLE>  <TITLE>冬柏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humbL</MAIN\_IMG\_THUMB>  <LAT>35.151962</LAT>  </item>  <item>  <MAIN\_TITLE>피란수도길</MAIN\_TITLE>  <CATE2\_NM>市中心路</CATE2\_NM>  <LNG>129.01738</LNG>  <MIDDLE\_SIZE\_RM1/>  <UC\_SEQ>30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1950年6月25日凌晨，从突袭南侵开始了战争。预备不足的南韩在开战3天，首都汉城就被夺走了。一直后退的南韩政府于1950年8月18日，把釜山当成了避难首都。虽已过去约70年，但釜山处处都留有当时的痕迹。让我们到充满历史和悲欢离合的地方一起去看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避难首都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碑石文化村 - 云休观景台 - 崔敏植画廊 - 火车屋艺术体验场 - 临时首都纪念馆 - 石堂博物馆&lt;/p&gt;  釜山西区峨嵋洞有一个可以了解难民生活的峨嵋洞碑石文化村。这里是为躲避战争冲突来到釜山的难民停靠的山脚。也是日本殖民统治时期日本人做为公墓使用的地方。在连盖房子的材料都很难弄到的年代，人们为躲避风雨用每座墓地的石碑为材料，在坟墓上盖房生活。至今在碑石文化村每个小巷，都完整地保留着当时的痕迹。  从碑石文化村只需步行3分钟左右，就能到达“云休观景台”。在这里可将峨嵋洞一带的山腹道路尽收眼底。连像样的地基都没有，只是沿着山坡盖房子生活的难民们。沿着就连一个人都很难走过去的小巷，看着密密麻麻紧挨着的房子，就像看到了生活苦涩的难民的脸庞。  就在观景台下面有一个村庄，那里有崔敏植画廊，生动地证明难民生活的这个画廊是一定要去的地方。崔敏植是韩国第一代纪录片摄影家，主要在釜山开展活动，以毫无保留地拍摄平民生活而出名。在该画廊可以看到卖东西的札嘎其大婶、沾着黑煤的脸露出明朗笑容的孩子等战后釜山面貌的照片。静静地看着这些老照片，仿佛看到那个年代苦涩又疲惫不堪，但仍有希望而忍受每一天的难民。  崔敏植画廊旁边的火车屋艺术体验场也是要去的地方。“火车屋”一词是由把单间房分开成类似火车车厢的样子，里面住着很多人的意思而来。这里是如实体现为生存只能重新划分狭窄空间的难民们窘迫生活的空间。现如今这里既是居民的聚会场所，也是游客的体验场和休息区。  从火车屋艺术体验场沿着山脊步行10分钟左右，就能看到临时首都纪念馆。临时首都纪念馆是曾经在避难首都釜山，约有1000天作为总统府使用的地方。这里曾经是韩国前总统李承晚执行政务的地方，如今这里设有可以间接体验当时难民生活的模型展览馆，适合为孩子们提供教育的场所。  从临时首都纪念馆往东亚大学方向走就能看到石堂博物馆。过去这里作为临时首都政府办公大楼使用，如今被用作展现釜山历史的博物馆。用红色砖瓦建造的建筑是代表釜山的现代式建筑，从日本殖民统治时期到韩国战争为止，如实地珍藏着韩国近现代时期的政治和社会面貌。  釜山的蔚蓝大海、摩天楼固然好，但如果想见证贯穿韩国近现代史的釜山历史，不妨沿着避难首都路去感受一下具有历史意义的徒步旅行。  </ITEMCNTNTS>  <PLACE>避难首都街</PLACE>  <SUBTITLE/>  <TITLE>避难首都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humbL</MAIN\_IMG\_THUMB>  <LAT>35.103672</LAT>  </item>  <item>  <MAIN\_TITLE>원도심투어</MAIN\_TITLE>  <CATE2\_NM>市中心路</CATE2\_NM>  <LNG>129.03847</LNG>  <MIDDLE\_SIZE\_RM1/>  <UC\_SEQ>30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旅行也有多种多样的主题。  有为寻找美食店的美食之旅，也有为了各种体验的体验之旅等，但这里却有涵盖这一切的旅游圣地。那就是“釜山老城区故事之旅”，这里不仅有美食、看点，还处处有釜山的故事。旅游路线由探访中区、西区、东区、影岛区一带构成。还有一个独特的优势就是能够听到长期居住在这里的老人们生动的解说。  让我们到有故事的地方旅游吧，对拥有老城区回忆的人来说，旅行可以带来乡愁；对正在成长的孩子们来说，可以带来全新的体验。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草梁故事路&lt;/p&gt;  在位于釜山东区的故事路上可以看到近代釜山的痕迹。就像展示过去开埠中心的光荣一样，变身为有情调的咖啡馆的原百济医院和草梁教堂保留着近代建筑风格。从金敏夫观景台和柳致环邮筒俯瞰釜山港风景，可将郁闷的心情一扫而空。连接山腹道路上下的168阶梯保留着旧时的风情。为在数不清的陡峭台阶上爬上爬下的居民开通的单轨列车，可为游客们提供故事路独有的特色体验街。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甘川文化村/避难首都路&lt;/p&gt;  釜山沙下区和西区是可以切身感受到韩国战争遗留痕迹中的难民生活的地方。甘川文化村以只行走在弯弯曲曲的小巷中，就能够欣赏到各种壁画而闻名，它本来是由韩国战争当时难民们在山脊上密密麻麻地建造房子而形成的。在居民们和艺术家们的努力下，曾经只有痛苦痕迹的村子变成了充满艺术氛围的感性胡同。只要有地，哪怕是墓地也要盖房子生活的碑石文化村，记录扎嘎其劳动体力活生涯的崔敏植摄影家的画廊，还有曾经是总统府的临时首都纪念馆，如今都变成避难首都——釜山的珍贵遗产。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龙头山路/国际市场路&lt;/p&gt;  一言以蔽之，中区是釜山的过去和现在共存的地方。包括开埠时期建造的草梁倭馆、受到日本帝国主义影响的百货商店，还有能够生动感受到近代釜山面貌的釜山近代历史馆和大觉寺等，最完整地展现了近代釜山的历史。东游西逛，感觉饿了就直接去国际市场看看吧。这里曾经是难民们的生存前线，市场各处都有可充饥的食物。这里的每种食物似乎都隐藏着悲伤和惆怅的故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岛大桥路/白川村路&lt;/p&gt;  如果填饱了肚子，就到釜山的另一个象征——影岛大桥去看看吧。连接中区和影岛区的影岛大桥是韩国最早的开启桥，也是难民相逢的场所。过去这里有很多修船的地方，会发出“Gang-Gang”的声音，所以就叫“奚琴(Gang-Gang)路”了。  沿着影岛海岸绝壁形成的白川村路是经常拍摄电影的地方，因此也被广为人知，这里一年四季都会有络绎不绝的游客。沿着村子下方的海岸散步路向前，就能看到一望无际的影岛前海。  </ITEMCNTNTS>  <PLACE>原城市中心之旅</PLACE>  <SUBTITLE/>  <TITLE>老城区故事之旅</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17</LAT>  </item>  <item>  <MAIN\_TITLE>이기대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2091</LNG>  <MIDDLE\_SIZE\_RM1>残疾人停车场、残疾人洗手间</MIDDLE\_SIZE\_RM1>  <UC\_SEQ>32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2号线庆星大学•釜庆大学站 → 换乘20、22、24、27、39、131路巴士  居民区小巴士 南区2、8路  停车 二妓台公营停车场（收费）</TRFC\_INFO>  <ITEMCNTNTS>二妓台是位于南区龙湖洞的长山峰山脚下的东部海域  美丽海岸“岩盘”的另一个名称。  “二妓台”是因曾经在水营的两个妓女被埋在这里而得名。  相传，在壬辰倭乱时，倭军打下水营城之后摆下酒席庆祝胜利，那时两个妓女与已喝醉的倭军将军一起跳入水中，壮烈牺牲。  二妓台一直以来都被作为军事作战地区限制进出，而从1993年起向市民开放。现在这里已经形成了城市里罕见的郁郁葱葱的森林，并且各种各样的野生动物栖息在此地。由于水质非常干净，也是釜山数一数二的垂钓处。  在二妓台有散步路，能够欣赏海岸一带的美丽风景，因此一直以来受到人们的喜爱。走在与循环道路和五六岛连接的散步路时，能够从不同的角度欣赏釜山的地标。  二妓台海岸散步路是南区健行路线之一，这是连接东山尾-游乐广场-农岩-五六岛码头的路线，总长度为4.7千米（耗时约为两个半小时）。正式健行从二妓台The View下面开始，沿着海岸绝壁出现电视剧般的美丽风景，这里可以看到位于海洋彼岸的广安大桥、釜山游艇系留场、海洋城市、冬柏岛、APEC世峰楼与海云台海水浴场等。  二妓台海岸散步路是代表釜山的海鸥路与海波朗路（五六岛~高城）的一部分，所以走路的时候总会遇到路标。  经过东山尾，在天桥上走一会儿就到了游乐广场。这里不仅是迎日胜地、还是电影《海云台》的拍摄地，也是很多游客休息的地方。  沿着海岸漫步能够看到独特的海岸绝壁与波蚀台地，这里是釜山国家地质公园区域，有海蚀洞窟、瓯穴（海洋坑洼）等很多地质遗产。奇异的岩石按照自己形象有各自不同的名字，试试搭配其形象与名字也很有意思。  经过山路翻越山坡，就能到达大五六岛日出公园。这里是人们能够同时欣赏日出与日落的名胜，以玻璃地板制作的天空步道给人带来刺激的体验。  无论是在二妓台上的哪个地方，都能够感受到海风拂面。  这时担心逐渐消失，在心底仅留下蓝海。  这是否就是适宜徒步的最佳例子呢。  </ITEMCNTNTS>  <PLACE>二妓台海岸散步路</PLACE>  <SUBTITLE>美丽的绝境 痛苦的历史</SUBTITLE>  <TITLE>二妓台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humbL</MAIN\_IMG\_THUMB>  <LAT>35.130497</LAT>  </item>  <item>  <MAIN\_TITLE>삼포해안길</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7104</LNG>  <MIDDLE\_SIZE\_RM1/>  <UC\_SEQ>34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还有比“快快”更为人所熟悉的文化吗？尽管如此“慢慢行走”仍有受欢迎的理由。暂时停下忙碌的日常生活，享受一下悠闲，放下沉重的包袱慢慢行走，一切都在这条路上。下面介绍一下横穿海云台和松亭的三浦海岸路。  海云台海水浴场的尽头就是三浦路的第一个港口——尾浦。位于高楼之间的雅致的尾浦，好似海云台卧牛山的尾巴。沿街营业的生鱼片店连成长排，而在大海前的浪堤之间，等待钓到大鱼的垂钓者们静静地凝视着远海。尾浦有一个游轮码头，可开船到五六岛。走着走着，如果想要更近距离地享受大海的话，可以暂时到五六岛游览。  尾浦的名所，无论如何都是尾浦铁路。连接下一个码头——青沙浦的这条铁路原来是东海南部线所经之路，但于2013年封路之后重新诞生为散步路，而现如今召唤着很多游客的到来。  直接向铁路外延伸的大海的风景无论对游客还是对釜山市民都魅力十足。除此之外，沿着铁路行走，可增添对已逝去事物的怜悯。沿着铁路走会出现一个小隧道，这里是尾浦铁路最受欢迎的拍照区。  除了沿着铁路前往青沙浦的方式外，还有从尾浦通过月光路通往青沙浦的路线。位于迎月路和海岸中间的林中散步路——月光路与映射月光的路这一名字不谋而合，每到晚上都与美丽的灯光一起映衬出更加美丽的景观。等站到观景台才发现原来在茂密的海松之间隐约可见的大海是那样的无边无际。  尾浦铁路和月光路的尽头就是青沙浦。以清澈的海水著称的青沙浦，因为可以捕捉到很多鱼而被称为钓鱼爱好者的圣地。红白双子灯塔默默地矗立在那里的小港口。看起来模模糊糊的海平线和泛起白色浪花的海浪声以及随风飞舞的带有咸味的大海的气息，在青沙浦可用五感来感受这样的大海。  最近竣工的这个小港口的踏石观景台，将为您带来如同行走在海面上的惊险体验。  从踏石观景台，铁路再次连接九德浦。在通往三浦海岸路的最后一个港口——九德浦的路上，在铁道之间盛开的无名野花和小草让这里更彰显生命力。好像在跟疲惫于行走的游客们加油助威。  九德浦与前两个港口相比显得更加朴素，这里是享受海洋闲适的绝佳场所。在走过的铁路尽头可遇见的九德浦前海，担心和忧虑都会变成白色泡沫而消逝。沿着沿海岸形成的狭长的路继续行走，就会到达冲浪爱好者的圣地——松亭海水浴场。  “三浦海岸路”因接连沿着釜山的代表性港口——尾浦、青沙浦、九德浦行走而得名。就让我们暂时放下忙碌的日常生活慢慢行走在这条海岸路，让开阔的海景去抚慰疲惫的身心。  \*\*\* 上文介绍的“尾浦铁路”因施工将关闭至2020年6月，特此告知。  </ITEMCNTNTS>  <PLACE>三浦海岸路</PLACE>  <SUBTITLE/>  <TITLE>三浦海岸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6001</LAT>  </item>  <item>  <MAIN\_TITLE>기장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2112</LNG>  <MIDDLE\_SIZE\_RM1/>  <UC\_SEQ>352</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如果是已经游览过釜山著名旅游景点的游客，接下来去釜山机张郡如何？  下面介绍一下能够领略新的釜山大海之魅力的机张海岸散步路！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荐路线&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公须村–海东龙宫寺–国家水产科学馆–Ananti Cove–五郎台公园-莲花里-大边港&lt;/p&gt;  小而美丽的港口——公须村是一个像马蹄形的幽静海岸村。虽然是一个雅致的渔村，但因为这里是著名的机张海带产地，因此每到春天就能看到晾晒刚采摘的海带的景观。村庄与浪堤上红色灯塔相望，和突岩上的松树丘陵一起呈现出美妙绝景。连接村庄的海岩是钓鱼爱好者和海鸟的天堂。  沿着海松和竹林相连的小路，前往海东龙宫寺。这里可是欣赏大海美景再合适不过的地方了。前院是翡翠色大海的寺庙能有几个呢？据说在这里许愿，至少有一个愿望能得以实现，因此更不能错过此地。怀揣虔诚的心许下心愿后，走进连接水产科学馆的散步路。  这里是离大海最近的水产科学馆。来这里可以积累海洋水产知识，还可以了解关于未来海洋技术的相关信息。最重要的是，这里是登上水产科学馆观景台眺望全景的绝佳之地，同时还是机张海岸散步路上的徒步游客们的一个很好的休息场所。  希尔顿釜山Ananti Cove进驻机张。这里位于可以一览机张前海的风景秀丽的地方，感觉像是酒店又非酒店，又好像是酒店的小村庄。所以取名为Ananti Cove Town。在此不仅可以住宿还可以享受文化和休闲生活。如果在感觉肚子慢慢开始饿的时候去访问，那就再好不过了。  机张的渔村个个都小巧可爱。经过东岩港来到五郎台公园。在耸立的奇岩怪石顶上，坐落着祈愿渔夫们安全上船的祭坛——龙王坛，别有一番风韵。在凹凸不平的岩石路上小心翼翼地踩着岩石，登上龙王坛就能更近距离地聆听撞击在岩石上的海浪声。  接连不断的海岸路不知何时已经到了尽头，将暂时连接到内陆。远远望到的“魔神Z”和“跆拳V”灯塔太可爱了。经过这些灯塔，就快要到莲花里了。机张莲花里是有名的海鲜产地。海女们亲手采摘的鲜活海鲜和热乎乎的鲍鱼粥，不知何时已成为了莲花里的必吃美食。  名响韩国的机张鳀鱼和机张海带就是这里大边港的产物。每到春天，就会举行可切实体现渔夫们抖鳀鱼渔网的“鳀鱼节”。沿着结束捕捞的船所停泊的安静的港口悠闲地漫步。两边的帐篷上基本上都是鳀鱼、鳀鱼酱和海带。既然远到而来，得手拿一包东西才算正宗，是手拿鳀鱼呢还是海带呢？这也是个问题。  快速享受釜山市中心的旅行固然好，但也希望您能以大海为友漫步，感受一下慢(slow)釜山。这次就来挑~战一下机张海岸散步路吧！  </ITEMCNTNTS>  <PLACE>机张海岸散步路</PLACE>  <SUBTITLE/>  <TITLE>机张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humbL</MAIN\_IMG\_THUMB>  <LAT>35.184452</LAT>  </item>  <item>  <MAIN\_TITLE>화지산 치유숲길</MAIN\_TITLE>  <CATE2\_NM>林道</CATE2\_NM>  <LNG>129.06126</LNG>  <MIDDLE\_SIZE\_RM1/>  <UC\_SEQ>356</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从儿童大公园出发，经过华池山治愈林，再到釜山市民公园，便开始了可以治愈身心满眼绿色自然风光的徒步旅行。  儿童大公园坐落于与华池山相连的白杨山脚下，以圣知谷水源地为中心，是可以尽情享受清新自然树林的地方。这里种类多样，大小不一的树木鳞次栉比。正因为这些郁郁葱葱的树木，让人感觉不像在釜山的市中心。带着似乎是在江原道深山脚某处漫步的感觉，正式开始了探访。  从儿童大公园走向华池山的路，一直都是平坦的土路。在密密麻麻的松林中，可以看到很多身穿便装的登山客。事实上，与其说华池山是为了登山所登的山，还不如说它是后山。得益于此，谁都可以轻松爬上山享受治愈森林。走在绿油油的林间小路上，呼吸着清新的空气。治愈便已经开始了，脚步也似乎感觉越来越轻便。  向着华池山山顶方向前进，到处都是壮观的松树群。这些数不清的松树是从什么时候开始在这里的呢？品味着随风飘来的松香，传达着感激之情。当开始小心翼翼地避开四处掉落的一颗颗松果，便意味着很快就能看到宣告山顶的标石了。  到达山顶后便该下山了。看到向人们展示通往釜山市民公园的路标非常欣喜。没过多久就到达飘满植物杀菌素香的扁柏林，从挺拔的树丛中吹过来的风很是凉爽，以至于脚步变得越来越慢。干脆坐下休息一会儿也挺不错。在离市民公园更近的地方，可以看到天然纪念物“紫薇树”，从炎炎夏日开始开花，百日缤纷的紫薇树。约定好下次花开的季节再次来访，便挪开脚步了。  接下来到了从华池山到釜山市民公园的大桥。它又被称为Eco Bridge，白天给人通行，而晚上是让动物通行的生态路。原来它是为了人和动物和平共存而努力的桥啊。  通过Eco Bridge到达的釜山市民公园，是经过日本帝国主义强占时期和美军驻扎的100年，才回到了市民怀抱中的土地，其意义重大。这个公园以正中央广阔的草坪广场为中心，是融合自然、文化、游戏的主题型公园，是治愈的徒步旅行最后一站。漫步于横跨公园的田浦川，可以为心灵的闲暇充电。水杉大道、悬铃木林荫大道、山茶树迷宫庭院，会让人眼前一亮。从大型喷泉涌出的清凉的水柱能够替你冲刷掉也许还有一点残留的疲劳感，孩子们在绿茵茵的草地上嬉戏，清脆的笑声不绝于耳。  原来这么愉快的空间竟然有100年都不曾是我们的土地。过去的历史虽然隐藏着伤痛，但只要我们不抹去那些记忆，那么耻辱的历史应该也会被治愈吧。  在树荫下坐上一席，感觉身心都很平和。  </ITEMCNTNTS>  <PLACE>华池山治愈林路</PLACE>  <SUBTITLE/>  <TITLE>华池山治愈林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humbL</MAIN\_IMG\_THUMB>  <LAT>35.183876</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5</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5) [부산도보여행 중문 번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5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도보여행 중문 번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도보여행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번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Zht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23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58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초량이바구길 | 콘텐츠명 |
| CATE2\_NM | 구분 | 100 | 0 | 市區路 | 구분 |
| LAT | 위도 | 20 | 0 | 35.1163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3874 | 경도 |
| PLACE | 장소 | 300 | 0 | 草粱故事路 | 장소 |
| TITLE | 제목 | 300 | 0 | 草粱故事路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故事之“花”盛放 | 부제목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都市鐵路 從1號線釜山站7號出口步行2分鐘，從草梁站1號出口步行8分鐘  巴士 乘坐26、27、40、41、59、81、87、103、1003、1004路巴士，在釜山站下車，步行2分鐘  停車 附近公營停車場 | 교통정보 |
| MIDDLE\_SIZE\_RM1 | 기타정보 | 500 | 0 |  | 기타정보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以釜山港為中心，在附近每座山的半山腰都建造著密密麻麻的房屋。  這是離開心愛的故鄉，逃到釜山避難的人們爬到山上建立的村莊。只要有活計，就到碼頭、車站和國際市場等，一天上下幾十趟的168階梯。  由完全不懂慶尚道方言的人們所講述的故事路，一起到草粱故事路聽故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粱故事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原百濟醫院 - 南線倉庫地 - 草粱教堂 - 168階梯 - 金敏夫觀景台 - 故事工作室 - 張起呂紀念分享中心 - 柳致環郵筒觀景台&lt;/p&gt;  在對面狹窄的胡同中遇見的原百濟醫院和南線倉庫地基就是草粱故事路的出發點。雄偉的百濟醫院和只剩下牆壁的南線倉庫地基的紅磚上依然殘留著歲月的痕跡。彷彿能在腦海中勾勒出這兩處地方在20世紀20年代最輝煌燦爛的盛況。  接著前往外國傳教士最早建立的草粱教堂。據說這裡是由開展抗日運動、反對參拜神社的人們聚集在一起共同建造的教堂。在沿著草梁小學圍牆建起的狹窄小巷裡，佈滿了歲月的痕跡。每張照片中都映射出了難民們的喜怒哀樂。  沒有道路的板子村當然也不可能有自來水。想必在當時，如果想用水，就需要跑下168階梯，在提桶中裝滿水後再爬上似乎沒有盡頭的階梯。只剩下地基的井和階梯旁的單軌列車讓人感受到了歲月無情的流逝。  在紀念釜山天才詩人金敏夫的金敏夫觀景台暫時休息之後，再前往故事工作室。故事工作室是一個展示在草粱山腹道路間發生的瑣碎故事的空間。在彷彿能與天空相接的山腹道路村，每家每戶都有許多的故事。這裡是平靜地傳達苦澀人生痕蹟的地方 。  接下來要認識的是一輩子沒為自己準備過一間房子，免費為貧困難民看病的外科醫生張起呂博士。張起呂博士施展的並非醫術，而是仁術，在紀念其業績的張起呂紀念分享中心，可以學到他那自願貧窮的崇高精神。之後在市內巴士來往的山腹道路盡頭的柳致環郵筒觀景台眺望釜山港，結束草粱故事路的旅程。  每一條能感受到歲月的胡同都有自己的故事。跟著故事走就會明白，原來當地人們所講的“Ibagu”就是故事，“Kkakkomak”就是非常陡的陡坡。  就像難民們的所作所為一樣，草粱故事路就是我們一直走下去的人生旅程。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WalkingService/getWalkingZht?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초량이바구길</MAIN\_TITLE>  <CATE2\_NM>市區路</CATE2\_NM>  <LNG>129.03874</LNG>  <MIDDLE\_SIZE\_RM1/>  <UC\_SEQ>58</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從1號線釜山站7號出口步行2分鐘，從草梁站1號出口步行8分鐘  巴士 乘坐26、27、40、41、59、81、87、103、1003、1004路巴士，在釜山站下車，步行2分鐘  停車 附近公營停車場</TRFC\_INFO>  <ITEMCNTNTS>以釜山港為中心，在附近每座山的半山腰都建造著密密麻麻的房屋。  這是離開心愛的故鄉，逃到釜山避難的人們爬到山上建立的村莊。只要有活計，就到碼頭、車站和國際市場等，一天上下幾十趟的168階梯。  由完全不懂慶尚道方言的人們所講述的故事路，一起到草粱故事路聽故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草粱故事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原百濟醫院 - 南線倉庫地 - 草粱教堂 - 168階梯 - 金敏夫觀景台 - 故事工作室 - 張起呂紀念分享中心 - 柳致環郵筒觀景台&lt;/p&gt;  在對面狹窄的胡同中遇見的原百濟醫院和南線倉庫地基就是草粱故事路的出發點。雄偉的百濟醫院和只剩下牆壁的南線倉庫地基的紅磚上依然殘留著歲月的痕跡。彷彿能在腦海中勾勒出這兩處地方在20世紀20年代最輝煌燦爛的盛況。  接著前往外國傳教士最早建立的草粱教堂。據說這裡是由開展抗日運動、反對參拜神社的人們聚集在一起共同建造的教堂。在沿著草梁小學圍牆建起的狹窄小巷裡，佈滿了歲月的痕跡。每張照片中都映射出了難民們的喜怒哀樂。  沒有道路的板子村當然也不可能有自來水。想必在當時，如果想用水，就需要跑下168階梯，在提桶中裝滿水後再爬上似乎沒有盡頭的階梯。只剩下地基的井和階梯旁的單軌列車讓人感受到了歲月無情的流逝。  在紀念釜山天才詩人金敏夫的金敏夫觀景台暫時休息之後，再前往故事工作室。故事工作室是一個展示在草粱山腹道路間發生的瑣碎故事的空間。在彷彿能與天空相接的山腹道路村，每家每戶都有許多的故事。這裡是平靜地傳達苦澀人生痕蹟的地方 。  接下來要認識的是一輩子沒為自己準備過一間房子，免費為貧困難民看病的外科醫生張起呂博士。張起呂博士施展的並非醫術，而是仁術，在紀念其業績的張起呂紀念分享中心，可以學到他那自願貧窮的崇高精神。之後在市內巴士來往的山腹道路盡頭的柳致環郵筒觀景台眺望釜山港，結束草粱故事路的旅程。  每一條能感受到歲月的胡同都有自己的故事。跟著故事走就會明白，原來當地人們所講的“Ibagu”就是故事，“Kkakkomak”就是非常陡的陡坡。  就像難民們的所作所為一樣，草粱故事路就是我們一直走下去的人生旅程。  </ITEMCNTNTS>  <PLACE>草粱故事路</PLACE>  <SUBTITLE>故事之“花”盛放 </SUBTITLE>  <TITLE>草粱故事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125133252609\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35</LAT>  </item>  <item>  <MAIN\_TITLE>절영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04251</LNG>  <MIDDLE\_SIZE\_RM1>有輪椅通行區間(絕影海岸散步路入口~白川海岸隧道/絕影海浪路)</MIDDLE\_SIZE\_RM1>  <UC\_SEQ>25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巴士 508、6、7、70、71、82、85、9路，影島區1、5路，釜山保健高中站下車</TRFC\_INFO>  <ITEMCNTNTS>提起釜山就會想起大海！你說你去過很多海水浴場？如果想要感受釜山大海獨特的魅力，就去絕影海岸散步路吧!  位於釜山影島瀛仙洞，太宗台入口處的絕影海岸散步路是從南港洞的管理事務所出發，經過中里港、甘地海邊路,與太宗台連接的約3千米長的海岸路。  過去因這里地形陡峭、險峻，所以成為了軍事保護區。直至2001年才開發為散步路，現已成為韓國的旅遊勝地。沿著散步路牆面建造的瓷磚壁畫和波浪紋地板與眼前的大海相映成趣，給人帶來清涼之感。  走在絕影海岸散步路上，偶爾會看到海女在下海撿海物，她們就是南港漁村的海女。經過白川海岸隧道，即可在樸素的海女村觀賞到直接採集的自然海物。假如在行走過程中感到有點餓，可以到海女村，品嚐新鮮的海產品，感受大海的原汁原味，也相當不錯。  作為2014年國土海洋部選定的名副其實的韓國五大海岸散步路之一，處處都有很多看點。登上五顏六色的彩虹色鋼琴台階，就能到達白川觀景台。而登上觀景台，就可以看到南港錨泊地如夢似幻的海景。如果不走彩虹台階，就直接去白川海岸隧道吧。全長70米的隧道內，設有五彩繽紛的燈光和華麗的拍照區，深受遊客們的喜愛。  走出白川海岸隧道，會看到完全不同的海岸路。影島的西岸，將很久之前的景觀和自然環境保存得非常完好。看著陡峭的奇岩絕壁和激蕩的波濤，會不覺令人心曠神怡。連接在岩石之間的索橋為長長的散步路帶來了別樣的樂趣，可謂是“治愈路”上的亮點。  沿著林道向前到達絕影海浪路。在絕影海浪路有許多絕美的海景，可以看到一望無際的大海。其中，天空觀景台的天空步道會讓人感覺彷彿在海面上行走，帶來強烈的刺激體驗。附近的75廣場是在1975年建成的，可作為供遊客休息的場所，天氣晴朗時，還可以看到對岸的對馬島，是文化旅遊熱點。一邊是水平線，一邊是美麗展現的白川村一帶，在海風的吹拂下，不妨就在這裡，將一切辛苦和悲傷的事都全部放飛。  沿著蜿蜒起伏的波濤，可以同時感受悠閒和自由的絕影海岸散步路。只是行走在其中，就能得到治癒的天然自然景觀，是絕不可錯過的影島之寶 。  </ITEMCNTNTS>  <PLACE>絕影海岸散步路</PLACE>  <SUBTITLE>以大海為友的路線</SUBTITLE>  <TITLE>絕影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2111363\_thumbL</MAIN\_IMG\_THUMB>  <LAT>35.080116</LAT>  </item>  <item>  <MAIN\_TITLE>달맞이길/문탠로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807</LNG>  <MIDDLE\_SIZE\_RM1>殘疾人洗手間、殘疾人停車區、輪椅可通行</MIDDLE\_SIZE\_RM1>  <UC\_SEQ>28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在2號線海雲台站1號出口→換乘海雲台區2、10路居民區小巴士  巴士 乘坐100、139、141、200、39、1003、141（夜間）路巴士，在尾浦月光路入口站下車  居民區小巴士 乘坐海雲台區2、10路居民區小巴士，在日新Haila獨立住宅樓站下車。乘坐海雲台區7路車，在迎月療養醫院站下車。  市區旅遊巴士 海雲台海水浴場（藍線）→ 在迎月路站下車  停車 附近的公共停車場</TRFC\_INFO>  <ITEMCNTNTS>是海雲台三浦街的起點，也是連接海鷗路路線1和路線2的道路。  月出動人的釜山人氣兜風路線。  白天望著蔚藍的大海漫步，晚上迎著月光漫步。  如果說巴黎有蒙馬特山丘，那麼釜山就有迎月路。  雖然迎月路需要登上迎月坡，但一點都不會覺得費力。因為隨著視野變得開闊，可將海雲台的海水浴場、冬柏島，以及遠處的廣安大橋盡收眼底。沿著石牆路的街道上，坐落著各種漂亮的咖啡館、高雅的餐廳，以及隱藏的美食店，讓遊客心動不已。  在迎月路的中間位置，可以看到海月亭。古色古香的亭子是讓因行走而感到疲乏的腿部短暫休息的好去處，同時也是迎月坡最佳觀賞月出的地方。月光低垂的海雲台前海形成的壯麗景觀是大韓八景之一。傳說，在正月光的照耀下，在這裡互許諾言的男女就能夠實現美好愛情。  沿著連接海月亭到月光路的小道一直往下，就能在鬱鬱蔥蔥的松林道間看到碧藍的大海。可以將位於迎月坡入口處的月光路作為漫步松林道的起點，但如果已經走到了海月亭，那麼這條小道就是能夠與月光路匯合的最快方法。  月光路寓意為迎著月光行走的林間小路，從迎月坡開始延伸，非常適合散步。只需身著便裝、腳踩運動鞋，就能輕鬆走完月光路。經過長2.2公里的區間，會再次回到出發點。走完循環散步路最多也就需要一個小時左右。不回出發點，沿著東海南部線的鐵路向前，就能到達青沙浦、松亭海水浴場。正如“月光散步路”之名，這裡從日落後到晚上11點，從凌晨5點到日出前，都會燈火通明。  月光路的另一個魅力在於林間散步路旁的那一片碧藍的大海。在途中可以前往觀景台望著釜山前海一掃積累的所有壓力。讓我們靜靜閉上眼睛，聽著波濤聲，清空腦海裡的雜念。  迎著伴隨松香吹來的海風及淡淡的月光散步。  如果說之前記住的是熙熙攘攘的海雲台市中心，那麼接下來就領略一下海雲台所隱藏的其他魅力吧。  </ITEMCNTNTS>  <PLACE>迎月路/月光路</PLACE>  <SUBTITLE>適合步行的市中心內林道</SUBTITLE>  <TITLE>迎月路&amp;月光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2829491\_thumbL</MAIN\_IMG\_THUMB>  <LAT>35.156742</LAT>  </item>  <item>  <MAIN\_TITLE>동백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5263</LNG>  <MIDDLE\_SIZE\_RM1>殘疾人洗手間、殘疾人停車區、輪椅可通行、APEC世峰樓內有輪椅出租、 盲道磚</MIDDLE\_SIZE\_RM1>  <UC\_SEQ>284</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從2號線冬柏站1號出口步行20分鐘  巴士 乘坐139、307、1003路巴士，在冬柏島入口站下車  釜山市區旅遊巴士 釜山站（紅線）→在海雲台海水浴場站下車  停車 冬柏公園公共停車場</TRFC\_INFO>  <ITEMCNTNTS>漫步在海雲台海水浴場，望著廣闊的大海，沉浸在思緒中，不知不覺就來到了位於白沙灘盡頭的冬柏島。這裡本是一座島嶼，但在漫長的歲月中，因沉積導致與陸地相連，不過釜山人仍然將這裡稱之為冬柏島。  冬柏公園是將冬柏島的自然風光原封不動地呈現給遊客的公園，鬱鬱蔥蔥的海松非常壯觀。沿著冬柏島周邊鋪設的海岸散步路約長950米，雖不算長，但可以在這裡靜靜散步，整理一天的日程。  經過第一個眺望台，再往前走一段，就能看到岩石上的那座孤獨的銅像。這是以《三國遺事》上記載的黃玉公主的傳說為基礎製作的人魚像。據說，遠嫁到大洋彼岸的黃玉公主在思念祖國時，就會看著升起滿月的海面，平復悲痛的內心。  該銅像於1974年首次建成，但因1987年的颱風而遺失，目前上身部分保存在釜山博物館。現在的青銅人魚像是1989年重新製作而成的。  沿著綿延的海路一直向前，就能看到一座索橋。雖然一部分路段可以看到下面，但因為橋身較短，且並不是很高，所以即便有恐高症或是怕高的兒童也可以順利通過。  海岸散步路經寬敞的觀景台一直延伸至白色燈塔。在觀景台上眺望大海，可以同時看到APEC世峰樓和廣安大橋。如果再往左一點，就可以看到五六島，所以這是一個能夠一覽釜山大海的好地方。  APEC世峰樓是2005年舉行釜山APEC峰會的場所。在這裡可以看到圍繞會議現場佈置的亞‧太首腦們的座椅，以及當時提供的飲食和紀念品等。與海雲台美景完美結合的現代外觀，可以說是世界上最具特色的國際會議廳。  在冬柏島可以感受到大海、森林以及原汁原味的大自然。沿著海岸線漫步的浪漫加上代表釜山的標誌性建築，冬柏海岸散步路已成為海雲台旅遊的必經路線。  </ITEMCNTNTS>  <PLACE>冬柏海岸散步路</PLACE>  <SUBTITLE>懷抱釜山的冬柏海岸散步路</SUBTITLE>  <TITLE>冬柏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73711840\_thumbL</MAIN\_IMG\_THUMB>  <LAT>35.151962</LAT>  </item>  <item>  <MAIN\_TITLE>피란수도길</MAIN\_TITLE>  <CATE2\_NM>市區路</CATE2\_NM>  <LNG>129.01738</LNG>  <MIDDLE\_SIZE\_RM1/>  <UC\_SEQ>30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1950年6月25日凌晨，從突襲南侵開始了戰爭。預備不足的南韓在開戰3天，首都漢城就被奪走了。一直後退的南韓政府於1950年8月18日，把釜山當成了避難首都。雖已過去約70年，但釜山處處都留有當時的痕跡。讓我們到充滿歷史和悲歡離合的地方一起去看看吧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避難首都路&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碑石文化村 - 雲休觀景台 - 崔敏植畫廊 - 火車屋藝術體驗場 - 臨時首都紀念館 - 石堂博物館&lt;/p&gt;  釜山西區峨嵋洞有一個可以了解難民生活的峨嵋洞碑石文化村。這裡是為躲避戰爭衝突來到釜山的難民停靠的山腳。也是日本殖民統治時期日本人做為公墓使用的地方。在連蓋房子的材料都很難弄到的年代，人們為躲避風雨用每座墓地的石碑為材料，在墳墓上蓋房生活。至今在碑石文化村每個小巷，都完整地保留著當時的痕跡。  從碑石文化村只需步行3分鐘左右，就能到達“雲休觀景台”。在這裡可將峨嵋洞一帶的山腹道路盡收眼底。連像樣的地基都沒有，只是沿著山坡蓋房子生活的難民們。沿著就連一個人都很難走過去的小巷，看著密密麻麻緊挨著的房子，就像看到了生活苦澀的難民的臉龐。  就在觀景台下面有一個村莊，那裡有崔敏植畫廊，生動地證明難民生活的這個畫廊是一定要去的地方。崔敏植是韓國第一代紀錄片攝影家，主要在釜山開展活動，以毫無保留地拍攝平民生活而出名。在該畫廊可以看到賣東西的札嘎其大嬸、沾著黑煤的臉露出明朗笑容的孩子等戰後釜山面貌的照片。靜靜地看著這些老照片，彷彿看到那個年代苦澀又疲憊不堪，但仍有希望而忍受每一天的難民。  崔敏植畫廊旁邊的火車屋藝術體驗場也是要去的地方。 “火車屋”一詞是由把單間房分開成類似火車車廂的樣子，裡面住著很多人的意思而來。這裡是如實體現為生存只能重新劃分狹窄空間的難民們窘迫生活的空間。現如今這裡既是居民的聚會場所，也是遊客的體驗場和休息區。  從火車屋藝術體驗場沿著山脊步行10分鐘左右，就能看到臨時首都紀念館。臨時首都紀念館是曾經在避難首都釜山，約有1000天作為總統府使用的地方。這裡曾經是韓國前總統李承晚執行政務的地方，如今這裡設有可以間接體驗當時難民生活的模型展覽館，適合為孩子們提供教育的場所。  從臨時首都紀念館往東亞大學方向走就能看到石堂博物館。過去這裡作為臨時首都政府辦公大樓使用，如今被用作展現釜山歷史的博物館。用紅色磚瓦建造的建築是代表釜山的現代式建築，從日本殖民統治時期到韓國戰爭為止，如實地珍藏著韓國近現代時期的政治和社會面貌。  釜山的蔚藍大海、摩天樓固然好，但如果想見證貫穿韓國近現代史的釜山歷史，不妨沿著避難首都路去感受一下具有歷史意義的徒步旅行。  </ITEMCNTNTS>  <PLACE>避難首都街</PLACE>  <SUBTITLE/>  <TITLE>避難首都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200123184924352\_thumbL</MAIN\_IMG\_THUMB>  <LAT>35.103672</LAT>  </item>  <item>  <MAIN\_TITLE>원도심투어</MAIN\_TITLE>  <CATE2\_NM>市區路</CATE2\_NM>  <LNG>129.03847</LNG>  <MIDDLE\_SIZE\_RM1/>  <UC\_SEQ>30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旅行也有多種多樣的主題。  有為尋找美食店的美食之旅，也有為了各種體驗的體驗之旅等，但這裡卻有涵蓋這一切的旅遊聖地。那就是“釜山老城區故事之旅”，這裡不僅有美食、看點，還處處有釜山的故事。旅遊路線由探訪中區、西區、東區、影島區一帶構成。還有一個獨特的優勢就是能夠聽到長期居住在這裡的老人們生動的解說。  讓我們到有故事的地方旅遊吧，對擁有老城區回憶的人來說，旅行可以帶來鄉愁；對正在成長的孩子們來說，可以帶來全新的體驗。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草梁故事路&lt;/p&gt;  在位於釜山東區的故事路上可以看到近代釜山的痕跡。就像展示過去開埠中心的光榮一樣，變身為有情調的咖啡館的原百濟醫院和草梁教堂保留著近代建築風格。從金敏夫觀景台和柳致環郵筒俯瞰釜山港風景，可將鬱悶的心情一掃而空。連接山腹道路上下的168階梯保留著舊時的風情。為在數不清的陡峭台階上爬上爬下的居民開通的單軌列車，可為遊客們提供故事路獨有的特色體驗街。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甘川文化村/避難首都路&lt;/p&gt;  釜山沙下區和西區是可以切身感受到韓國戰爭遺留痕跡中的難民生活的地方。甘川文化村以只行走在彎彎曲曲的小巷中，就能夠欣賞到各種壁畫而聞名，它本來是由韓國戰爭當時難民們在山脊上密密麻麻地建造房子而形成的。在居民們和藝術家們的努力下，曾經只有痛苦痕蹟的村子變成了充滿藝術氛圍的感性胡同。只要有地，哪怕是墓地也要蓋房子生活的碑石文化村，記錄扎嘎其勞動體力活生涯的崔敏植攝影家的畫廊，還有曾經是總統府的臨時首都紀念館，如今都變成避難首都— —釜山的珍貴遺產。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龍頭山路/國際市場路&lt;/p&gt;  一言以蔽之，中區是釜山的過去和現在共存的地方。包括開埠時期建造的草梁倭館、受到日本帝國主義影響的百貨商店，還有能夠生動感受到近代釜山面貌的釜山近代歷史館和大覺寺等，最完整地展現了近代釜山的歷史。東遊西逛，感覺餓了就直接去國際市場看看吧。這裡曾經是難民們的生存前線，市場各處都有可充飢的食物。這裡的每種食物似乎都隱藏著悲傷和惆悵的故事。  &lt;p class="font-size20 colorDarkBlue bold"&gt;影島大橋路/白川村路 &lt;/p&gt;  如果填飽了肚子，就到釜山的另一個像徵——影島大橋去看看吧。連接中區和影島區的影島大橋是韓國最早的開啟橋，也是難民相逢的場所。過去這裡有很多修船的地方，會發出“Gang-Gang”的聲音，所以就叫“奚琴(Gang-Gang)路”了。  沿著影島海岸絕壁形成的白川村路是經常拍攝電影的地方，因此也被廣為人知，這裡一年四季都會有絡繹不絕的遊客。沿著村子下方的海岸散步路向前，就能看到一望無際的影島前海。  </ITEMCNTNTS>  <PLACE>原城市中心之旅</PLACE>  <SUBTITLE/>  <TITLE>老城區故事之旅</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6163914867\_thumbL</MAIN\_IMG\_THUMB>  <LAT>35.11617</LAT>  </item>  <item>  <MAIN\_TITLE>이기대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2091</LNG>  <MIDDLE\_SIZE\_RM1>殘疾人停車場、殘疾人洗手間</MIDDLE\_SIZE\_RM1>  <UC\_SEQ>323</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2號線慶星大學•釜慶大學站 → 換乘20、22、24、27、39、131路巴士  居民區小巴士 南區2、8路  停車 二妓台公營停車場（收費）</TRFC\_INFO>  <ITEMCNTNTS>二妓台是位於南區龍湖洞的長山峰山腳下的東部海域  美麗海岸“岩盤”的另一個名稱。  “二妓台”是因曾經在水營的兩個妓女被埋在這里而得名。  相傳，在壬辰倭亂時，倭軍打下水營城之後擺下酒席慶祝勝利，那時兩個妓女與已喝醉的倭軍將軍一起跳入水中，壯烈犧牲  二妓台一直以來都被作為軍事作戰地區限制進出，而從1993年起向市民開放。現在這裡已經形成了城市裡罕見的鬱鬱蔥蔥的森林，並且各種各樣的野生動物棲息在此地。由於水質非常乾淨，也是釜山數一數二的垂釣處。  在二妓台有散步路，能夠欣賞海岸一帶的美麗風景，因此一直以來受到人們的喜愛。走在與循環道路和五六島連接的散步路時，能夠從不同的角度欣賞釜山的地標 。  二妓台海岸散步路是南區健行路線之一，這是連接東山尾-遊樂廣場-農岩-五六島碼頭的路線，總長度為4.7千米（耗時約為兩個半小時）。正式健行從二妓台The View下面開始，沿著海岸絕壁出現電視劇般的美麗風景，這裡可以看到位於海洋彼岸的廣安大橋、釜山遊艇系留場、海洋城市、冬柏島、APEC世峰樓與海雲台海水浴場等。  二妓台海岸散步路是代表釜山的海鷗路與海波朗路（五六島~高城）的一部分，所以走路的時候總會遇到路標。  經過東山尾，在天橋上走一會兒就到了遊樂廣場。這裡不僅是迎日勝地、還是電影《海雲台》的拍攝地，也是很多遊客休息的地方。  沿著海岸漫步能夠看到獨特的海岸絕壁與波蝕台地，這裡是釜山國家地質公園區域，有海蝕洞窟、甌穴（海洋坑洼）等很多地質遺產。奇異的岩石按照自己形像有各自不同的名字，試試搭配其形象與名字也很有意思。  經過山路翻越山坡，就能到達大五六島日出公園。這裡是人們能夠同時欣賞日出與日落的名勝，以玻璃地板製作的天空步道給人帶來刺激的體驗。  無論是在二妓台上的哪個地方，都能夠感受到海風拂面。  這時擔心逐漸消失，在心底僅留下藍海。  這是否就是適宜徒步的最佳例子呢。  </ITEMCNTNTS>  <PLACE>二妓台海岸散步路</PLACE>  <SUBTITLE>釜山精品健行路線，二妓台海岸散步路</SUBTITLE>  <TITLE>二妓台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094915608\_thumbL</MAIN\_IMG\_THUMB>  <LAT>35.130497</LAT>  </item>  <item>  <MAIN\_TITLE>삼포해안길</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17104</LNG>  <MIDDLE\_SIZE\_RM1/>  <UC\_SEQ>349</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還有比“快快”更為人所熟悉的文化嗎？儘管如此“慢慢行走”仍有受歡迎的理由。暫時停下忙碌的日常生活，享受一下悠閒，放下沉重的包袱慢慢行走，一切都在這條路上。下面介紹一下橫穿海雲台和松亭的三浦海岸路。  海雲台海水浴場的盡頭就是三浦路的第一個港口——尾浦。位於高樓之間的雅緻的尾浦，好似海雲台臥牛山的尾巴。沿街營業的生魚片店連成長排，而在大海前的浪堤之間，等待釣到大魚的垂釣者們靜靜地凝視著遠海。尾浦有一個遊輪碼頭，可開船到五六島。走著走著，如果想要更近距離地享受大海的話，可以暫時到五六島遊覽。  尾浦的名所，無論如何都是尾浦鐵路。連接下一個碼頭——青沙浦的這條鐵路原來是東海南部線所經之路，但於2013年封路之後重新誕生為散步路，而現如今召喚著很多遊客的到來。  直接向鐵路外延伸的大海的風景無論對遊客還是對釜山市民都魅力十足。除此之外，沿著鐵路行走，可增添對已逝去事物的憐憫。沿著鐵路走會出現一個小隧道，這裡是尾浦鐵路最受歡迎的拍照區。  除了沿著鐵路前往青沙浦的方式外，還有從尾浦通過月光路通往青沙浦的路線。位於迎月路和海岸中間的林中散步路——月光路與映射月光的路這一名字不謀而合，每到晚上都與美麗的燈光一起映襯出更加美麗的景觀。等站到觀景台才發現原來在茂密的海松之間隱約可見的大海是那樣的無邊無際。  尾浦鐵路和月光路的盡頭就是青沙浦。以清澈的海水著稱的青沙浦，因為可以捕捉到很多魚而被稱為釣魚愛好者的聖地。紅白雙子燈塔默默地矗立在那裡的小港口。看起來模模糊糊的海平線和泛起白色浪花的海浪聲以及隨風飛舞的帶有鹹味的大海的氣息，在青沙浦可用五感來感受這樣的大海。  最近竣工的這個小港口的踏石觀景台，將為您帶來如同行走在海面上的驚險體驗。  從踏石觀景台，鐵路再次連接九德浦。在通往三浦海岸路的最後一個港口——九德浦的路上，在鐵道之間盛開的無名野花和小草讓這裡更彰顯生命力。好像在跟疲憊於行走的遊客們加油助威。  九德浦與前兩個港口相比顯得更加樸素，這裡是享受海洋閒適的絕佳場所。在走過的鐵路盡頭可遇見的九德浦前海，擔心和憂慮都會變成白色泡沫而消逝。沿著沿海岸形成的狹長的路繼續行走，就會到達衝浪愛好者的聖地——松亭海水浴場。  “三浦海岸路”因接連沿著釜山的代表性港口——尾浦、青沙浦、九德浦行走而得名。就讓我們暫時放下忙碌的日常生活慢慢行走在這條海岸路，讓開闊的海景去撫慰疲憊的身心。  \*\*\*上文介绍的“尾浦铁路”因施工将关闭至2020年6月，特此告知。  </ITEMCNTNTS>  <PLACE>三浦海岸路</PLACE>  <SUBTITLE/>  <TITLE>三浦海岸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1323965\_thumbL</MAIN\_IMG\_THUMB>  <LAT>35.16001</LAT>  </item>  <item>  <MAIN\_TITLE>기장해안산책로</MAIN\_TITLE>  <CATE2\_NM>海岸路</CATE2\_NM>  <LNG>129.2112</LNG>  <MIDDLE\_SIZE\_RM1/>  <UC\_SEQ>352</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如果是已經遊覽過釜山著名旅遊景點的遊客，接下來去釜山機張郡如何？  下面介紹一下能夠領略新的釜山大海之魅力的機張海岸散步路！  &lt;p class="font-size28 colorDarkBlue medium"&gt;推薦路線&lt;/p&gt;&lt;p class="font-size20 medium"&gt;公須村–海東龍宮寺–國家水產科學館–Ananti Cove–五郎台公園-蓮花里-大邊港&lt;/p&gt;  小而美麗的港口——公須村是一個像馬蹄形的幽靜海岸村。雖然是一個雅緻的漁村，但因為這裡是著名的機張海帶產地，因此每到春天就能看到晾曬剛採摘的海帶的景觀。村莊與浪堤上紅色燈塔相望，和突岩上的松樹丘陵一起呈現出美妙絕景。連接村莊的海岩是釣魚愛好者和海鳥的天堂。  沿著海松和竹林相連的小路，前往海東龍宮寺。這裡可是欣賞大海美景再合適不過的地方了。前院是翡翠色大海的寺廟能有幾個呢？據說在這里許願，至少有一個願望能得以實現，因此更不能錯過此地。怀揣虔誠的心許下心願後，走進連接水產科學館的散步路。  這裡是離大海最近的水產科學館。來這裡可以積累海洋水產知識，還可以了解關於未來海洋技術的相關信息。最重要的是，這裡是登上水產科學館觀景台眺望全景的絕佳之地，同時還是機張海岸散步路上的徒步遊客們的一個很好的休息場所。  希爾頓釜山Ananti Cove進駐機張。這裡位於可以一覽機張前海的風景秀麗的地方，感覺像是酒店又非酒店，又好像是酒店的小村莊。所以取名為Ananti Cove Town。在此不僅可以住宿還可以享受文化和休閒生活。如果在感覺肚子慢慢開始餓的時候去訪問，那就再好不過了。  機張的漁村個個都小巧可愛。經過東岩港來到五郎台公園。在聳立的奇岩怪石頂上，坐落著祈願漁夫們安全上船的祭壇——龍王壇，別有一番風韻。在凹凸不平的岩石路上小心翼翼地踩著岩石，登上龍王壇就能更近距離地聆聽撞擊在岩石上的海浪聲。  接連不斷的海岸路不知何時已經到了盡頭，將暫時連接到內陸。遠遠望到的“魔神Z”和“跆拳V”燈塔太可愛了。經過這些燈塔，就快要到蓮花里了。機張蓮花里是有名的海鮮產地。海女們親手採摘的鮮活海鮮和熱乎乎的鮑魚粥，不知何時已成為了蓮花里的必吃美食。  名響韓國的機張鳀魚和機張海帶就是這里大邊港的產物。每到春天，就會舉行可切實體現漁夫們抖鳀魚漁網的“鳀魚節”。沿著結束捕撈的船所停泊的安靜的港口悠閒地漫步。兩邊的帳篷上基本上都是鳀魚、鳀魚醬和海帶。既然遠到而來，得手拿一包東西才算正宗，是手拿鳀魚呢還是海帶呢？這也是個問題。  快速享受釜山市中心的旅行固然好，但也希望您能以大海為友漫步，感受一下慢(slow)釜山。這次就來挑~戰一下機張海岸散步路吧！  </ITEMCNTNTS>  <PLACE>機張海岸散步路</PLACE>  <SUBTITLE/>  <TITLE>機張海岸散步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193422000\_thumbL</MAIN\_IMG\_THUMB>  <LAT>35.184452</LAT>  </item>  <item>  <MAIN\_TITLE>화지산 치유숲길</MAIN\_TITLE>  <CATE2\_NM>森林路</CATE2\_NM>  <LNG>129.06126</LNG>  <MIDDLE\_SIZE\_RM1/>  <UC\_SEQ>356</UC\_SEQ>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  <ITEMCNTNTS>從兒童大公園出發，經過華池山治愈林，再到釜山市民公園，便開始了可以治愈身心滿眼綠色自然風光的徒步旅行。  兒童大公園坐落於與華池山相連的白楊山腳下，以聖知谷水源地為中心，是可以盡情享受清新自然樹林的地方。這裡種類多樣，大小不一的樹木鱗次櫛比。正因為這些鬱鬱蔥蔥的樹木，讓人感覺不像在釜山的市中心。帶著似乎是在江原道深山腳某處漫步的感覺，正式開始了探訪。  從兒童大公園走向華池山的路，一直都是平坦的土路。在密密麻麻的松林中，可以看到很多身穿便裝的登山客。事實上，與其說華池山是為了登山所登的山，還不如說它是後山。得益於此，誰都可以輕鬆爬上山享受治愈森林。走在綠油油的林間小路上，呼吸著清新的空氣。治愈便已經開始了，腳步也似乎感覺越來越輕便。  向著華池山山頂方向前進，到處都是壯觀的松樹群。這些數不清的松樹是從什麼時候開始在這裡的呢？品味著隨風飄來的松香，傳達著感激之情。當開始小心翼翼地避開四處掉落的一顆顆松果，便意味著很快就能看到宣告山頂的標石了。  到達山頂後便該下山了。看到向人們展示通往釜山市民公園的路標非常欣喜。沒過多久就到達飄滿植物殺菌素香的扁柏林，從挺拔的樹叢中吹過來的風很是涼爽，以至於腳步變得越來越慢。乾脆坐下休息一會兒也挺不錯。在離市民公園更近的地方，可以看到天然紀念物“紫薇樹”，從炎炎夏日開始開花，百日繽紛的紫薇樹。約定好下次花開的季節再次來訪，便挪開腳步了。  接下來到了從華池山到釜山市民公園的大橋。它又被稱為Eco Bridge，白天給人通行，而晚上是讓動物通行的生態路。原來它是為了人和動物和平共存而努力的橋啊。  通過Eco Bridge到達的釜山市民公園，是經過日本帝國主義強佔時期和美軍駐紮的100年，才回到了市民懷抱中的土地，其意義重大。這個公園以正中央廣闊的草坪廣場為中心，是融合自然、文化、遊戲的主題型公園，是治癒的徒步旅行最後一站。漫步於橫跨公園的田浦川，可以為心靈的閒暇充電。水杉大道、懸鈴木林蔭大道、山茶樹迷宮庭院，會讓人眼前一亮。從大型噴泉湧出的清涼的水柱能夠替你沖刷掉也許還有一點殘留的疲勞感，孩子們在綠茵茵的草地上嬉戲，清脆的笑聲不絕於耳。  原來這麼愉快的空間竟然有100年都不曾是我們的土地。過去的歷史雖然隱藏著傷痛，但只要我們不抹去那些記憶，那麼恥辱的歷史應該也會被治愈吧。  在樹蔭下坐上一席，感覺身心都很平和。  </ITEMCNTNTS>  <PLACE>華池山治愈林路</PLACE>  <SUBTITLE/>  <TITLE>華池山治愈林路</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7200242053\_thumbL</MAIN\_IMG\_THUMB>  <LAT>35.183876</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23</totalCount>  </body>  </response>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  |  |  |
| --- | --- | --- |
| **에러코드** | **에러메시지** | **설명** |
| 00 | NORMAL\_CODE | 정상 |
| 01 | APPLICATION\_ERROR | 어플리케이션 에러 |
| 02 | DB\_ERROR | 데이터베이스 에러 |
| 03 | NODATA\_ERROR | 데이터없음 에러 |
| 04 | HTTP\_ERROR | HTTP 에러 |
| 05 | SERVICETIMEOUT\_ERROR | 서비스 연결실패 에러 |
| 10 | INVALID\_REQUEST\_PARAMETER\_ERROR | 잘못된 요청 파라메터 에러 |
| 11 | NO\_MANDATORY\_REQUEST\_PARAMETERS\_ERROR | 필수요청 파라메터가 없음 |
| 12 | NO\_OPENAPI\_SERVICE\_ERROR | 해당 오픈 API 서비스가 없거나 폐기됨 |
| 20 | SERVICE\_ACCESS\_DENIED\_ERROR | 서비스 접근거부 |
| 21 | TEMPORARILY\_DISABLE\_THE\_SERVICEKEY\_ERROR |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키 |
| 22 | LIMITED\_NUMBER\_OF\_SERVICE\_REQUESTS\_EXCEEDS\_ERROR | 서비스 요청제한횟수 초과에러 |
| 30 | SERVICE\_KEY\_IS\_NOT\_REGISTERED\_ERROR |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키 |
| 31 | DEADLINE\_HAS\_EXPIRED\_ERROR | 기한만료된 서비스키 |
| 32 | UNREGISTERED\_IP\_ERROR | 등록되지 않은 IP |
| 33 | UNSIGNED\_CALL\_ERROR | 서명되지 않은 호출 |
| 99 | UNKNOWN\_ERROR | 기타에러 |